[UCI]I804:24011-200000241097

2011년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국어 교과서의 문학 제재 분석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국 현 미

국어 교과서의 문학 제재 분석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terials of Literature in Korean Textbooks
- Centering on the 7th Year Korean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07 Revised Curriculum -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국 현 미

국어 교과서의 문학 제재 분석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terials of Literature in Korean Textbooks
- Centering on the 7th Year Korean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07 Revised Curriculum -

지도교수 김 혜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국 현 미

국현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재 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 주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영 인

2011 년 01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 연구사 검토 ····· 2
3. 연구 방법 ····· 6

Ⅱ. 교과서 문학 제재에 대한 관점 ····· 8
1. 문학 제재와 정전 ····· 8
2. 문학 제재와 학습자의 흥미 ····· 13
3. 문학 제재에 대한 교육적 관점 ····· 15

Ⅲ. 7학년 국정과 검정 국어교과서 문학 제재 수록 양상 ····· 19

1. 갈래 ····· 20
1-1. 서정 ····· 21
1-2. 서사 ····· 23
1-3. 교술 ····· 24

2. 작가와 시대 ····· 25
2-1. 시 ····· 25
2-2. 소설 ····· 33
2-3. 수필 ····· 38

3. 제재와 주제 ····· 45
3-1. 시 ····· 45
3-2. 소설 ····· 50
3-3. 수필 ····· 55

4. 문학 제재별 단원 통합 양상 ····· 61
4-1. 시 ····· 62
4-2. 소설 ····· 74
4-3. 수필 ····· 82

5. 2007년 개정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문학 제재의 특징
····· 92

Ⅳ. 요약 및 제언 ····· 95

참고문헌
표 목차

<국문 요약>

국어 교과서의 문학 제재 분석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어 교과서의 문학 제재는 문학사적으로 작품성이 인정된 작품이어야 하며 교육적 함의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의 문학제재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전의 기준, 교육적 함의, 학생들의 흥미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 검정 23종 국어 교과서의 시, 소설, 수필에 해당하는 문학 제재의 수록 양상과 그 특성을 기존 제 7차 국정 국어교과서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국어교과서 문학 제재의 선정과 관련하여 교과서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장에서는 문학 제재가 문학 제재와 정전, 문학 제재와 학습자의 흥미, 문학 제재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분석하여 문학 제재가 국어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문학 제재의 수록 양상을 갈래에 따른 제재 수록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문종별로 작품의 작가와 시대, 작품의 제재의 주제, 작품의 단원 내용 영역 통합 양상을 1종 국정 교과서 체제의 국어교과서와 검정 국어 교과서와의 차이를 비교 고찰하여 검정 국어 교과서 문학 제재만의 특징을 통해 검정 교과서를 통한 교수-학습과정의 교육적 효과를 유추해보고 교과서의 성향을 파악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하여, 검정 국어 교과서는 단원 구성의 통합을 표면상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해 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있었다. 문종별 수록 작가들의 양상을 통해서는 각 교과서별로 선호하는 작가들의 성향이 시대성과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순수문학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3종 국어 교과서별 문학 제재의 수록 작품 수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어 교과서의 문학 제재는 국가와 사회보다는 그동안 소홀했던 학부모와 지역사회 특히,

학생의 수준과 주된 관심, 특성이 반영된 지금까지의 고정되고 제한된 소재가 아닌 다양하고 참신한 제재를 접하게 해주고, 이에 따른 국어 교사의 교재활용 능력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정제 교과로 전환되면서 동일 교과목의 연차적 집필시 집필자가 전 학년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는데 따른 수업내용의 학년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단원통합에 있어서도 형식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구체성을 지닌 내용적 요소의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출판에 있어 국정제에서 검정제로의 크나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변화의 결과물인 국어 교과서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통해 검정 교과서의 출원 자격을 완화하여 민간출판사 뿐 아니라 교과서 제작에 의지와 아이디어 및 기준의 자격을 갖춘 학회나 기관까지 교과서 출원을 확대하고, 자유 발행제 국어 교과서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해당 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교육목표를 체계적 · 단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교육과정이라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동일시하는 '닫힌 교과서관'과 교과서를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하나의 자료로 보는 '열린 교과서관'이 그것이다. 또한 교과서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가 아니면 학습을 위한 자료로 삼는가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 발행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여 정도와 편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정, 검인정, 자유발행제로 분류한다. 국정제는 국가(지방정부)에서 직접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발행제라고도 한다. 검정제는 민간이 먼저 교과서를 제작하여 사후에 권위를 가진 기관에서 심사를 받고, 적정한 기준에 합격하여 채택되면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정제는 민간이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국가(지방정부)에서 교과서로 인정한 후 목록을 정하여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자유 발행제는 일반도서의 출판 원칙을 교과서 발행에 적용하여,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 발행, 채택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0년 3월 중학교 1학년부터 국어 교과서는 처음으로 1종 국정 교과서에서 23종의 검정 교과서로 바뀌게 되었다.

검정제 도입 이전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 두 권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국어」는 '읽기'와 '문학'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국어」는 '듣기, 말하기, 쓰기, 국어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외적으로 판형이 확대되고, 다양한 사진이나 삽화의 컬러판 교과서로 개선되었고, 내적

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심화, 보충활동과 수행평가와 자기 주도적 교육이라는 취지아래 자기 평가와 상호평가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창의적이고 자율성을 지향하는 검·인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의해 2010년부터 7학년 국어교과서가 검정제 교과서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어교과서를 연구한 논문은 크게, 교과서 체제에 대한 연구, 교과서 제재에 대한 연구, 교과서 사용에 대한 연구,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이 가운데 교과서 제재에 대한 연구로 검정 국어교과서 문학 제재의 선정 및 수록 양상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국어 교과서의 문학 제재는 문학사적으로 작품성이 인정된 작품이어야 하며 교육적 함의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어교과서의 문학 제재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전의 기준, 교육적 함의, 학생들의 흥미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 검정 국어교과서의 시, 소설, 수필에 해당하는 문학 제재의 수록 양상과 그 특성을 기존 제 7차 국정 국어교과서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이후 검·인정제 국어교과서의 문학 제재의 선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에 한 몫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사 검토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를 사용한 이후로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를 '제 7차 교육과정 이후의 중학교 국어교과서'로 제한하고 살펴보았을 때 크게, 교과서 체제에 대한 연구, 교과서 제재에 대한 연구, 교과서 사용에 대한 연구,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교과서 체제에 대한 연구들은 제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가 이전과 달라진 점

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논문이 송은혜(2004)와 김라연(2002)이 있다. 송은혜(2004)는 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체제를 제 6차 교과서와 비교하여, 생활국어 교과서의 영역통합 양상을 분석하면서 국어 교과서는 영역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라연(2002)은 국어 교과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제 6차 국어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는 기능에 그쳤다면, 7차 국어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과서 체제 중 학습 활동이나 질문과 같은 단원 구성의 요소에 초점을 맞춘 서봉수(2001)는 7차 중학교 읽기 단원의 '학습활동'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조형주(2001)는 6, 7차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질문을 위치, 특성, 유형, 목적, 수준, 빈도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7차 교과서의 질문이 질문 구성 방식이나 수준에서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각 질문의 기능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외적 체제에 대한 연구는 교과서 디자인과 삽화 중 삽화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이 연구사 검토는 본 연구의 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기에 제외하기로 한다.

교과서 제재에 대한 연구는 글을 시, 소설, 설화, 희곡, 설명문 등 갈래별로 나누어 작품의 구조적,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거나, 작품 구성요소인 인물, 사건, 갈등 양상, 시점 등에 대한 분석하는 제재의 성격에 대한 연구, 제재의 주제와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제재를 유형화하고 제재가 지향하는 가치를 분석하는 제재의 주제와 가치관에 대한 분석, 제재 선정의 기준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제재 선정기준과 선정배경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희정(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문학 제재를 서정, 서사, 극 갈래의 셋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제재의 수록 현황을 정리하였으나 현대문학 제재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교과서 사용에 대한 연구에는 수업 현장 즉, 교실에서 교과서 사용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교과서와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를 발견해내는 연구와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 예로 오주희(2003)는 1학년 '읽기'단원을 중심으로 교과서 사용방식을 연구한 결과로 교사들이

7차 국어과 교과서의 의도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으며, 교사의 전문적 자질 부족으로 교과서 내용을 잘못 지도하는 경우와 함께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의도와 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 점들 지적하였다. 학생에게는 교사의 교과서 사용방식이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과서 내의 삽화나 캐릭터에 많은 관심을 보이나 삽화는 호기심으로 캐릭터는 단원내용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였다. 한지영(2003)은 중학교 국어과 수업 양상 연구를 통해 학습자 간의 수준 차이의 고려, 결과보다 학습과정의 중시, 학생의 실제적 언어활동, 교과서와 기타 교재의 활용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주희(2004)는 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지도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필범(2005)은 생활국어 교과서의 사용실태를 교사와 학생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로서 생활국어가 주당 수업 시수나 수업 시기 등이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으며 교사의 판단에 의해 학습에서 제외된 단원이 많은 점등 학생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재로서 국어교과서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하였다.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연구로 말하기, 표현 능력 신장, 읽기, 쓰기의 수업 모형을 제안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박보규(2002)는 탐구 학습을 제안하였고, 김광수(2003)는 ICT활용을 주제로 표현 능력 신장의 한 모형을 제시하였고, 손승희(2003)는 '말하기' 수업 실태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능력을 검증하였다. 이보영(2003), 장수진(2004)은 '어휘 학습'과 '높임법 학습'의 방법으로 탐구학습과 현시적 교수 모형을 제안하였고, 이혜선(2004)은 말하기, 듣기, 쓰기 활동으로 국어 지식 영역을 교수-학습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시 문학제재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는 고현숙(2002), 강명규(2003), 경미경(2003), 박지원(2005), 안은영(2005)으로 이들 연구는 문학 수업에서 학생중심의 수업 전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교수, 학습 자료로 교과서에 담긴 내용 자체를 분석한 것과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들로 나뉘며, 이를 통해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논리성을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들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정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제재 연구의 경향은 문학 제재 연구, 제재의 텍스트성에 대한 연구, 제재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문학 제재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문학 제재는 고전보다는 현대문학 제재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았고, 장르별로 소설 연구가 가장 많았다. 강은주(2003)는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내 고전문학 제재의 실태 분석을 통해 현대와 고전 문학 작품 비중을 분석하여 고전 문학 제재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덕현(2004)은 각 학교급별 국어 교과서의 시조 작품 수용 양상의 변천과 실태를 연구하였다. 소설에 대한 연구로 임진숙(2001)은 소설의 인물을 연구, 홍준표(2002)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을 분석하였고, 유경은(2004)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소설 작품에 나타난 갈등 구조 분석을, 심혜원(2005)은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성 역할 분석을 하였고, 조항미(2005)와 전소연(2007)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재 성장소설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강영혜(2009)는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수록 소설의 적절성을 고찰하였다.

시 제재에 대한 연구로 박옥희(2002)는 교과서에 실린 시 작품을 대상으로 '은유와 환유'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오주영(2004)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시 연구를, 홍지애(2006)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시를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조성빈(2008)은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시 수록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최수경(2009)의 논문으로, 이 논문에서는 7차 중학교 3학년 1,2학기 국어 교과서 소단원에 수록된 현대시 8편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이 시들에 대한 학습내용과 과제를 살피고 각 단원과 그 학습목표가 적절한지, 읽기 전 학습이 적절한지 그리고 학습활동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 학습목표별로 편성된 단원이 학습목표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학습자에게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읽기 전에'의 내용에 각 소단원의 특성에 맞게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목표

학습에서 지식위주의 비슷한 문항이 나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 소단원 특성을 살려 학습활동의 내용을 배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소설 제재에 대한 연구는 위의 연구사에서와 같이 인물 분석연구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임진숙과 홍준표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교과서 수록 소설 속의 인물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획일화된 인간이 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청소년들이 겪는 갈등과 부합되는 인물형의 제시를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유경은의 연구는 소설 속 인물의 갈등과 학습자의 삶을 연관 지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을 두고 이러한 소설의 인물과 갈등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돕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였다.

수필 제재에 대한 연구로 이진선(2009)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수필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있었으며, 이주영(2006)은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 목표와 학년별 내용 및 교과서 각 대단원의 학습목표와 학습 활동 간의 위계성, 통일성, 체계성 등이 고려된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이주영은 학습자 수준과 학습 목표달성,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면서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문학 작품의 선정이 필요하며 교과서 제재 선정 시 현장 교사들의 참여 요구와 더불어 문학 작품 선정시 학습자와 문화 간의 영향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수와 평가 활동을 연계하는 교수 학습을 추천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교과서의 문학 제재가 기존 국정 교과서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어교과서의 문학 제재 중 시, 소설, 수필의 문종을 대상으로 하며, 학년은 중학교 1학년으로 한정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1학년 1 · 2학기 국정교과서 국어와 생활국어 4책,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국어와 생활국어 92책 23종, 총 96책을 대상으로 어떤 문학 제재들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가를 단원 내용 영역별, 작가별, 제재 및 주제별, 교과서의 수록 경향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문학 제재가 국어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피기 위해 문학 제재와 정전, 문학 제재와 학습자의 흥미, 문학 제재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어교과서의 문학 제재에 의한 학습이 학습자 스스로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활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문학을 학습하는 궁극적 목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7학년 국정과 검정 국어교과서의 문학 제재 수록 양상을 갈래에 따른 제재 수록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문종별로 수록 작품의 작가와 시대, 수록 작품의 제재와 주제, 수록 작품의 단원 통합 영역을 분석하고, 이전 국정 교과서 체제하에서 교과서에 실린 문학 제재와의 차이를 비교 고찰해서 1종 국정 교과서 체제의 국어교과서와는 다른 검정 국어 교과서 문학 제재만의 특징을 통해 검정 교과서를 통한 교수-학습과정의 교육적 효과를 유추해보고 교과서의 성향을 파악해본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검정 국어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채택하여 사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시간상의 제약을 안고 있다. 또한 현재 검정 국어교과서는 7학년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제한점도 있다. 이는 중학교 각 학년별 연계성을 살핀다거나, 교육내용 전체의 체계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채택된 교과서로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통해 교과서 사용에 대한 설문을 덧붙인다면 연구에 보다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짧은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뢰도를 갖춘 답을 구하기에는 억지스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의 방법에서 제외한다.

Ⅱ. 교과서 문학 제재에 대한 관점

1. 문학 제재와 정전

정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영미 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전은 제도화된것을 전제로 하며, 제도화된것은 규범성, 타자의 것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 즉 권위를 지니게 된다. 우리의 경우, 정전 논의는 주로 중등학교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교과서의 문학 제재가 문학적 위상을 보장하는 준거 역할을 했다는 점과 연관된다. 우리나라 정전에 관한 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정재찬(1996)에 의하면 우리 고유의 정전으로 삼을 만한 것들에 대한 기준으로 순수성과 민족성이란 두 가지 잣대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순수성은 교육이라는 정화된 제도, 최소한 겉으로는 이데올로기와 정치 논쟁에 휩쓸리지 않은 준거였고, 민족성이란 근대국가 성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었다. 민족성과 순수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정전의 구성은 지금까지도 교육 정전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정전에 관한 연구 중 일반론으로 송무(1997)에 의하면 정전에 대한 논의는 문학교육 상황의 세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첫째는 교재 선정의 차원으로 이때는 교재의 목록이 가르쳐야 할 문학의 범례적 가치를 골고루 체험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교재의 목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둘째는 교수법의 차원이다. 정전을 어떻게 읽혀야 학습자의 문학적 능력이 향상되는가, 또는 정전에 섞여 있을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가려내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셋째는 제도의 차원이다. 이때는 교과과정, 학점제도, 평가제도 등이 효과적인 정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라영균(2000)은 문학에 있어서 정전에 속하는 소수의 뛰어난 작품들이 전체 문학사를 상징하게 되는데 따라서 문학정전을 구성하는 작업은 전체를 상징할 만한 작품들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정전은 첫째, 뛰어나고 우수하며, 특별한 가

치가 있는 작품, 둘째, 불멸의 시대를 초월하고, 영원하며, 기념비적이고, 지속적인 작품, 셋째 전형적이고, 모범적이며, 고전적인 작품, 넷째 반드시 전승될 가치가 있고, 누구에게나 알려진 그리고 계속 집중적으로 읽히는 작품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제한된 숫자의 작품들을 일반적으로 정전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작품 정전'혹은 '텍스트 정전'이라고 한다. 정전에는 작품 정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전화된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작가 정전' 그리고 정전화 된 해석방법을 다룬 '해석 정전'도 있다. 그러나 작가 정전과 작품 정전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동일한 정전작가의 작품일지라도 어떤 작품은 정전에 속하고 어떤 것은 정전에서 빠지며 또 시대에 따라 그 등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석 정전, '방법 정전'은 작품 정전에 비해 훨씬 가변적이며 유동적일 수 있다. 그것은 정전화된 한 작품이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의 가치도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국어 교육에서 정전에 관한 논의로, 최지현(1994)은 정전화 구성 방식에 대한 비판적 논의 가운데 정전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룬 논의 중 저항시 담론을 통해 정전 비판론자들의 논리를 바탕으로 문학교육 현장에서 교과서에 실린 시들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규명해 보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념성을 담보로 한 정전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는 비록 작품의 미적 가치를 배제한 채 이루어졌지만, 정전의 감춰진 이면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문영진(2001)은 문학교육에서 정전이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권위적 교재의 목록'을 뜻하며, '모범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받는 교재의 목록, 학습자들이 배울만한 텍스트'이자 '자신의 세대나 다음 세대에게 읽히고 싶어 하는 작가나 작품의 목록'이라고 하였다.

정재찬(2003)은 정전화 비판의 핵심은 '무엇을 읽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판적 대안의 대다수가 재정전화를 정전화 비판의 핵심으로 보는데 반해, 정재찬은 문제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보인다. 박용찬(2006)은 한국전쟁 전후 현대시의 국어 교과서 정전화

과정의 모색을 통해 교과서야 말로 '통제와 규율'이라는 국가주의 시선을 가장 잘 반영시킬 수 있는 매체였다고 하면서, 동일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라는 정전 구성의 방식은 '비판적인 공동 탐구자' 내지 주체적인 인간의 형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오늘날 새로운 정전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유성호(2007)는 정전 목록이 문학적 혹은 문학사적 가치나 의의 때문에 구성되기도 하지만 교육적 효과와 특수한 교육적 조건 때문에 선택되고 배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문학 텍스트가 교육과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피고자 하는데, 우리의 정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김혜정(2005)의 연구에 주로 의존하여 이 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국어과 교재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근대 교재로 쓰이던 '독본'에서 현대 교육과정 수립이후 '국어'로 변화하였다. 근대 계몽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교재의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된 독본은 '읽기 교본'의 성격을 지닌 종합· 교과· 참고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교과적 성격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문식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최선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현대 교육과정기로 들어서면서 점차 '국어과'적인 내용에 대한 모색을 하게 되고 다른 교과와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어국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원래 독본은 근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용어로 산문성을 중심으로 한 읽기 자료의 총칭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의 '독본'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특징은 특정 교과와는 무관한, 즉 국어교과의 특색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종합 교과의 성향을 지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교재에서 유일하게 이질적인 학부편찬의 '소학독본(1895.9)' 또한 급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이는 유교 경전을 발췌하여 5개 단원으로 구성한 단권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독본은 자주 독립과 민족성 고취에 대한 논설문류와 근대 서구적 과학 지식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설명문류라는 점에서 계몽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독본의 예로 국민소학독본,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초등소학, 고등

소학독본, 신정심상속학, 최신초등소학 등을 들 수 있다.

‘제재’는 현대 교육과정이 등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교과’개념이 생성되면서 창안된 개념으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설명하는 요체라 할 만하다. 제재가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재 또는 재료라는 뜻이므로 교과서의 제재는 하나의 단원 전체를 구성하는 학습 단계의 일부일 뿐이며, 단원 체제 안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원전으로부터 선정된 뒤, 학습 목표에 맞게 적절한 분량으로 재단되어야 한다. 독본은 원전으로부터 제재 선정 과정 없이 편찬자가 곧 제재의 저자가 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제재가 학습 단원의 하위 요소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목표를 실현하는 그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제재가 선정될 수 없었다. 교수요목기부터 교재의 학제 및 학년별 구분이 이루어져 2차 교육과정(1963년)부터 각 단원 제재의 지은이가 밝혀진다. 이 시기부터 일제식 교육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교육에 대한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우리 국문학에 대한 연구 또한 그 토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시점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국어 교과서에 우리의 근대 및 현대 문학 작품의 출현 횟수가 많고 또한 다양해진다.

과도기부터 7차 국정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문종의 수를 분석해 볼 때 가장 많은 문종은 설명문-현대수필-현대시-고시조-논설문-고전시가-현대시조-현대소설 순으로 설명문은 5차에서 갑자기 다른 차시에 비해 급증하였다. 이는 5차부터 기능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이 전환되면서 단원의 제재가 지니는 명문 혹은 정전으로서의 성격은 그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활동의 도구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공교육 상황에 늘상 ‘국정’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던 교재들을 중심으로 단원 제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당대 사회문화적 요구와 정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시적 사회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문학 제재에 대한 연구로 조희정(2005)의 논문이 있다. 이후 현대문학 제재 논의는 조희정의 논문에 기반을 두었다. 조희정에 의하면 해방이후 7차 교육과정기까지

현대시 제재는 총 102명의 시인, 213종의 현대시 제재가 교과서에 수록되었다고 한다. 다른 갈래에 비하여 특정 교육과정기에 집중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다양한 작품들이 선택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김소월, 김영랑, 박목월, 이육사는 각기 두 작품씩 선택되어 교차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반면 윤동주는 특정 작품이 반복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1차 이후 단 한번도 교과서에서 제외되지 않고 총 7종의 작품이 번갈아 수록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대 시조는 총 14명 시인의 64종 작품이 수록되었으며 건국기부터 4차 교과서까지 수록이 집중된다는 특징을 보이며 특정 시조 시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시인 중 1차-7차까지 빠지지 않고 작품이 수록된 이는 김상옥이며 그 외에도 이병기, 이은상, 이호우, 정인보의 작품이 취사선택되었다.

소설 제재에 있어서는 현대소설에 초점을 두고 총 41명 소설가의 작품 57종이 선택되었다. 현대 소설 제재에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현상은 교육과정별로 현대 소설 제재가 선택되는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건국기 다수의 현대 소설들이 선택되었으나 그 흐름은 1차 교과서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1차 교과서부터는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그러한 경향은 4차까지 지속되다가 5차 이후 점차 확대되며 7차 교과서에서 현대 소설류 현대 소설류 제재의 선택폭은 이전과는 달리 크게 확장되었다. 이는 건국기에 채택된 작품 목록이 정전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실패하는 양상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7차 교육과정기에 들어 정전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현대 소설 제재 중 정전의 지위에 오른 것은 황순원의 「소나기」이며, 오영수의 「요람기」, 심훈의 「상록수」도 4회 이상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외국작가의 작품으로는 호손의 「큰바위 얼굴」과 알퐁스 도데의 「별」이 대표적으로 1차에서 6차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중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정전의 지위를 획득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문학 제재와 학습자의 흥미

글과 흥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글의 주제에 대한 흥미가 글 이해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결론짓는다.(김성일. 1996) 문학 제재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도는 내용면에서 학습자가 특별히 선호하는 작품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이 선호하는 작품과 그렇지 못한 작품에는 어느 정도의 구분은 있다 학생들은 새롭거나 재미있는 내용 혹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반면 기성세대의 시각이 짙게 배어 있는 고리타분하거나 사변적인 내용의 작품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생각을 반영하며, 쉽고 재미있는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다룰 경우, 수용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가치 있는 문학체험이 가능한 작품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학습 제재의 내용은 학습자의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 동기는 인간 행동의 선택과 수용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 내적 동기는 행동의 전개 자체가 목표인 동기를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학습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갖게 하거나 스스로 학습하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를 뜻한다는, Kelly의 학습동기이론에서 흥미는 내적 동기에 해당한다. 내적 동기는 외적 동기보다 강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는 학습의 목표 달성에 관건이 된다고 변영계(2001)는 말하고 있다.

박영목(2001)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읽은 책에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가정하며, 교실에서의 활동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독자 반응 이론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작자-텍스트-독자'라는 문학 현상 가운데 '독자'에 초점을 맞추는 독자 반응 이론은 문학 교육 현장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학습자의 주도적이며, 창조적인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텍스트 내에 있는 것과 독자의 마음과 경험 속에 있는 것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찾는 수업방식에 의해 독자는 텍스트를 바라보는 그들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사고에 의해 의

미를 생산해 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독자 반응적 접근은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중시하고 그 바탕 아래서 문학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 교육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작품을 읽고 작품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느낌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나누는 상호작용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김연희(2006)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흥미도를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시 갈래의 경우 학생이 쓴 「4교시가 끝났다」라는 작품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작품은 교실에 흔히 볼 수 있는 점심의 풍경을 전쟁에 빗대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 학습자로부터 가장 좋아하는 시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7. 문학과 사회' '단원의 길잡이'에 인용된 「삼대독자」라는 학생의 시는 제시된 여덟 작품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보였다. 이 시에는 삼대독자인 남동생만을 위하는 한 가정의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소년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지만, 작품의 내용이 보편적이지 못하고 특수한 가정에 한정되어 또래의 학습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이유로 소통이 어려운 작품은 학습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학습자들은 문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서 그치면 되나, 문학 교과서에서는 문학 연구자의 영역은 그 이상의 수준을 학습자들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문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학습자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들을 무조건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식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교육적 필요에 의한 문학교재를 제작해야 하고, 문학 교육에서 요청되는 주요 목표별 교수모형을 개발하여 명작 중심의 문학 일반의 교재가 아니라 전략화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구인환 외, 2007)

김현수(2009)에 의하면 학습자는 쉽다고 생각되는 작품에서 흥미를 느끼고, 반대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난이도와 흥미도가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지만, 작품의 어려움은 학습자의 흥미도를 떨어뜨린다. 작품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너무 쉽지 않을 때 최적의 동기를 일으키고, 흥미를 유발한다. 흥미는 새로움, 복잡함, 놀람, 모호함과 같은 대조적 변인들의 함수이다. 제재의 모호함이나 불확실성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본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계에 있어 호기심도 왕성하며, 새로운 학교 문화에 관심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제재는 구체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참신해야 한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동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제재나 아이의 생활을 담은 제재, 인간의 내면보다는 사물에 대한 관찰이나 묘사가 뛰어난 제재 등이 문학 제재로 선정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성경수(2010)에 의하면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을 위해 선정한 문학으로 이 관점에서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 즉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성인들은 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학교의 문학교육이나 성인들이 권장하고 있는 문학 작품은 실제로 학생들이 즐겨 보는 문학 작품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청소년들은 고전 중심의 경직된 교과서나 추천 근거가 불명확한 도서 목록에서 그들이 읽을 작품을 선택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대부분 대형서점이나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대중매체의 광고, 혹은 친구의 소개에 의해 자신들이 읽을 작품을 선택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문학에 탐닉하게 되어 대다수가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 등의 문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문학에 심취해 있다고 하였다.

3. 문학 제재에 대한 교육적 관점

최운식(1986)에 의하면 문학교재는 독자에게 감동을 주어 정서 순화와 가치관의 고양에 의해 인격도야를 꾀하려는 내면화 과정의 매체 역할을 하는 교재로 정의된다. 따

라서 문학교재는 독자와 문학작품, 그리고 독자와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함을 말하며 더불어 문학 교재는 문예미학적 조건과 함께 교육학적 조건도 만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김대행(1987)은 언어를 가치중립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는 국어의 도구 교과 규정과 그동안 문학 교육이 표현 방식 교육에만 치중해왔음을 비판하면서 삶의 언어적 표현이 문학의 본질이며 언어의 가치중립적 구조물로서의 측면과 가치 창조적 변환으로서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문학 작품은 이해하고 감상해야 할 대상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표현 활동도 '창작'이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정동화(1989)는 문학 교육의 목표를 1차 목적으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2차 목적에는 체험의 확대, 정서의 순화, 상상력, 통찰력, 심미성, 창조력, 도덕성 함양을 최종 목적으로 인간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 작품을 교육의 제재로 삼을 때는 그 작품이 이룩하는 문학성에 기준을 두고 작품을 선정하게 된다고 윤여탁(1996)은 말한다. 이때 문학성이란 문학 작품이 이룩하는 완결성과 관련된 것으로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지칭한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문학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제재를 선택한다. 문학 제재들 가운데 인간의 삶을 가장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장르가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의 삶을 이야기라는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소통도구로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간접 경험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제한된 학습자의 경험의 폭이 소설을 통해 넓어지게 되고, 등장인물과의 감정의 동화를 통해 학습자를 소설 속에 이입함으로써 소설적 삶을 자신의 삶으로 전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인간 삶의 조건을 점검하는 장치를 활용하여 소설적 삶을 자신의 삶으로 전이하는 것"(구인환,1993)이다.

구인환은 『문학 교육론』(1994)에서 소설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인간의 삶에 대한 심화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시간적 · 공간적 ·

계층적으로 제약되며, 허용된 범주 내에서 체험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체험의 영역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허용되지 않은 범주의 체험의 시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자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로서 가능한 폭 넓고 가치 있는 체험을 시도한다. 소설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가장 잘 부응하는 장르로서 소설 교육에서 소설이 지닌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교육에 있어 문학 교육은 이같은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 초극(超克)의 힘이 형성됨을 이해시킨다. 현행 교육은 자연 과학적인 합리주의에 기초한 실용주의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세계인식의 방법은 인간의 경험에 가치 판단의 단초가 주어진다는 한계를 지닌다. 인간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예상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에 대한 결단을 요구받는 상황을 접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허구적 상상력에 의존하게 되고 이것은 허구적 세계에 대한 독서를 통해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소설의 텍스트 상호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문학 교육의 장에서 교육되는 실제는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문학의 실체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소설 교육도 주어진 텍스트를 통해 소설을 이해시키는 텍스트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소설의 재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소설에 있어 재미란 표피적 재미, 감동적 재미, 발견적 재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피적 재미가 저급한 재미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감동적 재미란 문학 작품이 지닌 가치의 세계에 동화되는데 따르는 재미이며, 발견적 재미는 독자가 능동적으로 문학 텍스트의 세계에 참여하여 독창적으로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와 고양된 가치의 세계를 발견해 내는 재미이다.

다섯째, 민족어의 감수성을 계발하고 민족어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고, 민족어의 사용능력을 신장해 주어야 한다. 소설은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다양한 언어적 형태

가 가능한 장르이다. 소설에 있어 문체의 다양성은 소설이 언어교육의 장에서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민족어의 체험을 극대화 시킬 중요한 자료가 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김상욱(1996)은 문학 교육의 목표를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문학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주체의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문학 교육의 결과로서 학습자가 비평적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으로 문학 교육이 상정하는 인간형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신헌재와 이재승(2001)은 문학을 중심으로 한 언어 지도가 여러 가지로 유용한 점이 많다고 하였다. 문학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거기에 사용된 언어가 높은 수준의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 문학을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기에 쉽다. 또한 문학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양소영(2006)은 문학 영역에서의 접근을 문학의 '수용과 창작'교육이라고 하였다. 이 관점에서는 문학 언어 자체가 가지는 규칙적 배열성이나 형식적 조응에 의한 균제미, 형상미는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문학 작품은 특정 문화, 사회적 배경을 지닌 특수한 자료로 취급되고 거기에 삶의 총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 형성의 기능이 있으므로 그것까지 문학 교육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한용(2006)에 의하면 이제까지 문학교육에서는 문학교육을 받는 주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학교육은 학습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연관적이다. 따라서 문학교육을 핵심어로 놓고 볼 경우,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묻기 보다는 어떤 문학이 좋은 문학인가 물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좋은 문학은 학습자의 성장과 자아성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다음 좋은 문학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좋은 문학은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환기한다. 둘째, 좋은 문학은 인간의 총체적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셋째, 좋은 문학은 인간의 윤리적 감각을 환기하도록 해준다. 넷째, 좋은 문학

은 인간의 자기 삶에 대해 성찰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좋은 문학의 교육적 역량에 대해 살펴보면, 문학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감수성을 확충하는 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부단히 물을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물음과 사색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전환하여 체험하는 가운데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학교육에서 이러한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문학교재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문학 교재의 이러한 요건은 요즘 같이 물질이 우선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데, 자본주의의 부조리에 대한 불신이 인간성과 사회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때 문학은 청소년이 인간을 신뢰하고 타인과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순수하고 진실한 인간상을 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으로 최인자(2008)는 말하고 있다. 문학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성찰은 좋은 인간이 형성되는 한 과정이 된다는 것이 문학을 하는 이들의 신념이다. 이는 문학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에 대한 평가가 상당경우 잠재되어 있다가 조건이 형성되면 외현된다는 점은 문학교육의 효과에 대한 성급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환기하게 한다.

Ⅲ. 7학년 국정과 검정 국어교과서 문학 제재 수록 양상

2010학년도부터 바뀌게 된 검정 교과서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증 할 수 있는 '매년 상시 검증제'가 도입되고 매년 새롭게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그동안 교과서 사용 연한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사용연한 5년이 지나면 전면 개정이 가능해, 학문과 시대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동일 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 때, 집필자가 전 학년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해 교과서 및 집필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해당 교과서의 저자가 될 수 있다. 교육부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해 편찬한 국정과는 달리, 검정 교과

서는 민간에서 제작해 교육부의 검정을 받은 경우로, 교육부의 검정 교과서 확대조치로 인해 민간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재 선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학년, 영역에서 다룸직한 텍스트의 유형, 그리고 해당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 제시한 텍스트의 유형은 네 가지 언어활동 목적에서 각각 선정한 것이다.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 제시된 텍스트는 학습자가 성취 기준에 도달한 결과 생산· 수용할 수 있는 텍스트, 또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들이다. 따라서 각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성취 기준과 차례대로 대응한다. 언어활동의 목적, 성취 기준, 학습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교과서의 제재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국어교과서의 다양한 문종 가운데 문학 제재는 작품을 인식적, 미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감상, 작품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여 작품에서 다룬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내면화함으로서 문학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0년 새로 개정된 23종 검정 국어교과서 또한 이러한 문학 제재에 대한 교육적 기대를 충족할 만한 제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갈래에 따른 제재 수록 현황과 시대와 작가, 제재와 주제, 단원통합양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갈래

문학은 여러 종류의 문학 작품 상호간의 차이점이나 유사점의 분명함과 아울러 문학에 대한 체계 있는 이해를 위해 갈래로 구분하는데, 문학의 갈래는 언어 형태에 따라 리듬을 중시하는 운문과 전달 기능을 중시하는 산문, 전달 방식에 따라 구비문학과 기

록문학, 내용과 표현 양식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의한 서정, 서사, 극에서 비롯하여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갈래, 여기에 평론을 더하여 5갈래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는 조동일에 의해 정리된 서정, 서사, 교술, 극의 4갈래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장에서는 서정, 서사, 교술갈래의 수록 현황을 살펴보았다.

1-1. 서정

교과서별 서정 갈래인 시 관련 제재는 3편에서 13편까지 그 범위가 넓었고 가장 많은 수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디딤돌(이)과 지학사(이)로 13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들이 수록하고 있는 시의 성향을 보면, 전체 교과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최근 작품 중심으로 수록하는 경향성에서 벗어나, 정형시와 자유시로 나누어서 균형을 맞추고 시대적으로 고대와 현대시는 물론 디딤돌(이)에서는 근대창가의 한 형식인 최남선의「경부철도가」까지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현대시의 경우 순수시와 청록파시인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1, 2학기 국어교과서에 시문학 제재 3개를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도 2개나 있었는데, 이들 작품이 시문학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좋은책은 「꽃 한송이」(문정희), 「성장」(이시영), 「두만강」(김규동)을 창비(김)는 「마음의 고향」(이시영), 「제비꽃에 대하여」(안도현), 「장편2」(김종삼)를 수록하고 있었다. 이들 두 교과서의 수록 작품들은 다른 교과서와 경향과는 다른 작품으로 그동안 시의 정전에 해당하는 기존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작품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서정갈래 수록 양상

속성	작가		시대			형식			내용	
	국내	외국	고대	근대	현대	자유	산문	정형	서정	서사
편수	118	0	13	7	98	96	1	21	118	0

먼저 작가별로 보면 외국작가의 작품이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문학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권의 문화, 예술, 역사 등을 알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를 뒤로 하고라도 문학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인 것에 대한 추구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우리 문학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외국 문학에 대해 관심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갖게 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기에 국어교육의 개방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다음은 시대별[1]로 살펴보면 고대시 13편과 근대시 7편 외에 현대시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어 현대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별로 고대와 근대 현대시를 고르게 수록한 교과서들에 비해 현대시만으로 시 제재를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가 대부분이어서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적절한 편제가 요구된다.

형식면을 살펴보면 현대시 일변도의 시 제재를 주로 선택함으로써 정형시 보다는 자유시의 수가 단연 많음을 알 수 있다. 시조를 비롯한 고전시가가 너무 적고 산문시가 없는 점은 다양한 시의 형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면에 정형시보다는 자유시의 형식이 시를 이해하고 창작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 문학 제재를 이해하고 단계별로 배워나가는 측면에서 보면 시를 정해진 율격에 의해 만들어가며 여기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운율의 맛을 알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적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되기에 고대시를 적절히 수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희정(2005)에 의하면 현대시조는 4차 교과서를 기점으로 고시가의 제재 비율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현대 시조는 퇴화하는 갈래로서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특정 시조 시인의 작품만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연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 대상인 검정 국어교과서의 13편의 시가 작품 속에도 1차부터 7차에 걸쳐 빠짐없이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 김상옥을 비롯하여 이병기, 이호우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시대 구분은 일반적 문학사에서 구분하는 것으로 근대문학시기를 개화기로부터 1920년대까지로 하고 현대문학시기는 193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대문학시기 이전을 고대로 구분하였다.

내용면을 보면 서사시는 찾아 볼 수 없고 서정시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서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고 그에 따른 독자층도 증가하였기에 보편적인 교육제재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사시에 비해 교사가 시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서정시 형식의 단순성과 리듬이 적은 노력으로 정서적 공감을 얻어내기 쉬운 측면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함축적 시 안에 한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서사시만의 장르적 특성을 접하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에 적절한 시대, 형식, 내용의 시 제재가 교육적 다양성 측면에서는 분명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1-2. 서사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다. 이 서술자가 제재가 되는 일련의 사건을 말해 준다. 이 서술자는 때로는 매우 근접해서 독자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기는 서술자의 전달 기능 및 여과, 변조 기능을 소설의 '서사성'이라고 하고 서사 갈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드시 서술되는 사건이 있어야 하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서술자가 존재하며, 사건은 다시 배열되고 재구성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사건, 서술자, 구조는 서사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갈래인 소설 제재는 1차 교과서부터 4차까지는 확연히 줄어들었다가 5차부터 확대되어 7차 교과서에서 소설의 선택폭이 이전과 달리 크게 확장되었는데, 이러한 7차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 23종 검정제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제재 중 소설은 총 58편으로 교과서별로 2편에서 8편까지의 소설 제재를 수록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소설 제재의 수는 6-7편으로 확인되었는데 5개 교과서 즉, 대교(박), 대교(왕), 비상, 지학(방), 지학(이)에서 7편을, 또 다른 5개 교과서 금성, 두산,

미래(이), 박영, 중앙에서 6편을 수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3-4편, 5편, 2편, 8편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가장 많은 소설 제재를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디딤(이)로 고전소설인「홍길동전」을 비롯하여 현대 소설 제재의 정전에 해당하는 황순원의「소나기」, 오영수의「요람기」와 함께 최근 작가의 작품으로 권정생, 안도현, 박완서의 작품 외에 새로 등장한 오승희의 작품을 수록했으며 국외 작가로 전 교육과정기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가와 작품으로 오 헨리의 「20년 후」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소설 제재로 구성하여 수록하고 있다.

1-3. 교술

조동일(1991)에 의하면 첫째, 있었던 일을, 둘째, 확장적 문체로, 셋째, 알려주어서 주장하는 특성에 의해 서정, 서사, 희곡과는 다른 제 4의 큰 갈래로 교술을 설정하였는데 여기서 '교'는 알려서 주장한다는 뜻이요, '술'은 어떤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 즉 외적 세계를 전달하는 교술갈래로 새로운 교과서 23종 수필 제재의 수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별로 수필 제재는 1학기와 2학기 교과서 전체에 3개에서 17개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새롬으로 1학기 교과서에서는 수필 제재를 단 1편도 다루지 않았다가 2학기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에 17개 작품을 나누어 수록하고 있었다. 새롬 외에도 10개 이상의 수필제재를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로는 금성, 디딤(이), 박영, 중앙이 있으며, 반면 3편씩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미래(이), 좋은책, 창비(김)가 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필제재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의 경우 그동안 교과서 수필이 지향하는 수필제재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설명한 글, 특정 수신인에게 사연을 적어 보낸 글, 있었던 일을 서술한 글, 여행의 경험을 기술한 글 등이 있다. 그 외 작가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여 외국작가나 학생, 문학을 업으로 하는

작가의 작품을 싣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다양한 현장에서 삶의 과정을 통한 직접 체험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중심이 되고, 작품의 시대 구성에 있어서는 현대수필만이 아닌 고전수필제재를 제시하여 현대수필과 비교 고찰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수필들이 나 자신에 국한된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 볼 수 있는 잠재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지 3개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들의 경우 이들 작품이 교과서 수필에게 알게 모르게 강요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일 수 있을까하는 관점으로 대했을 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무조건 많은 작품만을 수록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요구에 합당한 작품들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교과서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었지만, 작품 수와 상관없이 대표적으로 디딤(김), 디딤(이), 박영, 새롬, 중앙, 천재(김), 천재(박), 해냄 교과서들의 수록된 수필을 통해 이러한 의도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것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2. 작가와 시대

2-1. 시

국어 교과서에 어떤 작가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차시의 교육과정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 안에 작가가 추구하는 세계관과 개성을 담고 있기에 이러한 작품들의 성향을 통해 그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와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지향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바뀌어도 교과서에 매 차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시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작가, 새롭게 등장하는 작가에 주목하여 작품을 살펴보아야 한다.

김혜정(2005)은 국어 교재의 문종 및 지은이 변천에 대한 통사적 검토를 통해 과도기부터 7차까지 가장 많은 출현 빈도수를 보이는 문학 작가로 이은상, 윤선도, 이병기, 이희승, 정철, 현대작가로는 최남선, 이효석, 김상옥, 정인보, 김소월 등이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의 순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시 수록 작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시 수록 작가와 시대

<표 Ⅲ-2>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시 수록 작가와 시대

학기	작가	발표연도	작품명
1	김지하	1994	새봄
	정지용	1930	호수
	하대원(학생)	1981	아버지가 오실 때
	기형도	1989	엄마 걱정
2	정일근	1987	바다가 보이는 교실
	김상옥	1947	봉선화
	김영랑	1935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도종환	1994	어떤 마을
	안도현	1991	우리가 눈발이라면

7학년 국정 국어 교과서에 시를 싣고 있는 작가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학기에 4편, 2학기 5편으로 총 9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작품 2, 1940년대 작품 1, 1980년대 작품 3, 1990년대 작품 3으로 최근 작품들이 많다. 작가별로 다양한 작품이 눈에 띈다. 기존 정전에 속하는 작가들 보다는 도종환, 안도현을 비롯 현대시조시인 김상옥의 「봉선화」와 같은 시조작품도 한 편 수록하고 있고, 학생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인들의 성향에 있어서도 과거부터 1930-1940년대 순수문학적 성격이 강하던 김영랑, 김상옥이 있는 반면, 자신의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지 않았던 시인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작가층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2)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시 수록 작가와 시대

<표 Ⅲ-3>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시 수록 작가와 시대

작가	작품명	발표 연도	교과서	수록 교과서 수
유리왕	황조가	17C	교학(김)[2]	1
김종서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1390	천재(김)	1
이 개	방 안에 혓는 촛불	1455	웅진2[3]	1
황진이	어져 내 일이여	1552	교학(김), 두산	2
이순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1594	교학(김)	1
능운	달을 기다리며	1600	새롬	1
신흠	노래 만든 사람	1620	지학(이)2	1
윤선도	오우가	1630	지학(방)	1
박효관	공산에 우는 접동	1650	해냄	1
남구만	동창이 밝았느냐	1689	대교(왕), 새롬	2
이방원	하여가	1728	디딤(김), 디딤(이)	2
작자미상	어이 못 오던가	1728	미래(윤)	1
정몽주	단심가	1728	디딤(김), 디딤(이)	2
최남선	경부철도가	1908	디딤(이)	1
김소월	가는 길	1925	디딤(이), 박영, 좋은책생국	3
	산유화	1925	해냄2	1
	엄마야 누나야	1925	교학(김), 교학(남), 금성, 대교(박), 대교(왕), 두산생국, 디딤(김), 미래(이), 박영, 새롬, 웅진2, 지학(방), 천재(박)2	13
	풀따기	1925	두산, 지학(이)	2
한용운	해당화	1926	지학(이)-생국	1
이상화	통곡	1926	대교(왕)	1
심훈	그날이 오면	1930	박영, 새롬2	2
정지용	해바라기 씨	1934	미래(윤)	1
	바다3	1935	지학(방)2	1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1935	교학(김), 교학(남), 디딤(이), 미래(이)생국, 박영, 새롬생국, 좋은책생국, 지학(방)생국, 천재(노)생국, 천재(박)	10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1935	박영2. 비상2	2
윤동주	만돌이	1936	박영	1
	오줌싸개지도	1936	두산, 천재(노)2	2
	밤	1936	디딤(이)	1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1936	웅진2	1
김동명	내 마음은	1937	천재(박)	1
윤동주	새로운 길	1938	중앙	1
	햇빛, 바람	1938	비상	1
김기림	바다와 나비	1939	새롬	1
김억	연분홍 송이송이	1939	두산, 새롬, 천재(김)	3
유치환	깃발	1939	새롬2	1
이병기	별	1939	대교(박), 대교(왕), 두산, 디딤(이), 디딤(김)생국, 미래(이), 천재(노)	7
	오동꽃	1939	지학(이)	1
윤동주	눈 감고 간다	1941	대교(왕)	1
김종길	바다로 간 나비	1946	미래(이)	1
이육사	청포도	1946	디딤(이), 지학(이)2	2
박목월	봄바람	1946	해냄	1
박화목	38도선	1946	천재(박)	1
김상옥	봉선화	1947	금성, 천재(김)2	2
오장환	양	1947	미래(이)	1
이용악	꽃가루 속에	1947	중앙	1
권태응	감자꽃	1948	금성, 새롬, 창비(김)생국	3
	달팽이	1948	비상	1
박두진	하늘	1949	대교(박), 두산, 중앙, 웅진2	4
	해	1949	교학(남), 금성생국, 대교(박), 새롬생국, 지학(방), 천재(김)2	6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1951	금성, 지학(방)	2
김상옥	문패	1952	지학(방)2	1
김춘수	봄	1954	웅진	1
김민부	기다리는 마음	1955	해냄2	1
이호우	개화	1955	두산생국, 미래(이), 중앙	3
박목월	산도화	1955	지학(이)2	1
	물새알 산새알	1962	두산	1
허영자	행복	1966	비상, 미래(이), 중앙	3
김광섭	저녁에	1969	교학(김), 교학(남), 금성생국, 중앙, 대교(왕), 지학(방)	6
홍윤숙	오라! 이 강변으로	1969	지학(이)2	1
조태일	물, 바람, 빛	1971	대교(왕)	1
정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1972	지학(이)-생국	1
박성룡	풀잎	1973	교학(김), 미래(이)	2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1975	대교(왕), 두산-생국	2
이한직	낙타	1976	미래(이)-생국	1

김종삼	장편2	1977	창비(김)2	1
정완영	배밭 머리	1979	교학(남)	1
김광규	동서남북	1980	미래(윤)	1
도종환	수제비	1985	박영-생국	1
김규동	두만강	1987	좋은책2	1
정일근	바다가 보이는 교실	1987	웅진-생국	1
권정생	뻐꾹새	1988	미래(윤)-생국	1
오세영	3월	1988	좋은책	1
기형도	엄마걱정	1989	교학(김), 교학(남), 금성, 대교(왕)-생국, 디딤(이), 미래(윤), 박영, 비상, 천재(노)	9
김용택	밤편지	1989	중앙2	1
신경림	동해바다	1990	웅진2	1
정진규	별	1990	지학(이)2	1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1991	금성	1
	철길	1991	해냄2	1
최병홍	석류	1993	대교(박)	1
나희덕	배추의 마음	1994	천재(박)2	1
도종환	어떤 마을	1994	교학(김), 교학(남), 해냄-생국	3
	흔들리며 피는 꽃	1994	대교(박), 대교(왕)-생국	2
안도현	연탄 한 장	1994	새롬1-생국, 비상2	2
이시영	마음의 고향	1994	창비(김)	1
김명수	발자국	1995	지학(방)2	1
김용택	이 바쁜 때 웬 설사	1995	금성-생국, 웅진, 창비(김)	3
박두순	처음 안 일	1996	천재(노)	1
이시영	무지개	1996	지학(이)	1
안도현	제비꽃에 대하여	1997	대교(왕), 창비(김)	2
피천득	꽃씨와 도둑	1997	교학(남), 박영	2
	기다림	1997	디딤(이)	1
김용택	콩, 너는 죽었다.	1998	디딤(이)-생국2, 대교(박)-생국, 천재(박)2	3
이응인	민들레	1998	금성	1
임길택	비 오는 날	1998	천재(박)2	1
황인숙	비	1998	지학(방), 천재(노)-생국	2
이해인	나를 위로하는 날	1999	대교(왕)	1
류근삼	단풍	1999	중앙	1
복효근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 같이는	2000	디딤(이)-생국, 새롬	2
양정자	가을 소녀들	2000	웅진2	1
용혜원	봄 꽃피는 날	2002	금성	1
도종환	종례시간	2002	디딤(이)	1

정호승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2002	교학(남)	1
권대웅	햇빛이 말을 걸다	2003	천재(박)	1
손택수	흰둥이 생각	2003	천재(노)-생국	1
이시영	성장	2003	좋은책	1
김광규	초록색속도	2003	대교(왕)	1
황상순	달 내놓아라 달 내놓아라	2003	디딤(이)-생국	1
반칠환	노랑제비꽃	2005	대교(박)	1
오탁번	밤	2006	미래(이)	1
김기택	웃음에 바퀴가 달렸나봐	2007	새롬	1
안도현	살구꽃 지는 날	2007	지학(이)2	1
이의리	소나기	2007	대교(박)-생국	1
정완영	석수 할아버지	2007	대교(박)	1
윤부현	바다	2008	지학(이)	1
신형건	손을 기다리는 건	2008	디딤(이)	1
임길택	아버지1	2008	비상	1
전봉건	미끄럼틀	2008	박영-생국	1

-작품 발표 연도별 정렬 -

개정된 23종 7학년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문학 제재 중 시는 전체 118편이 수록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교과서에 실린 작품으로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로 13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 10개, 기형도의 「엄마 걱정」이 9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다. 3개 교과서 이상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 이병기의 「별」이 7개, 김광섭의 「저녁에」와 박두진의 「해」가 각각 6개 박두진의 「하늘」이 4개, 김소월의 「가는 길」, 김억의 「연분홍 송이송이」, 김용택의 「콩, 너는 죽었다」, 권태응의 「감자꽃」, 도종환의 「어떤 마을」, 이호우의 「개화」, 허영자의 「행복」이 각각 3개 교과서에 채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23종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줄여서 표기하고자 한다. 괄호 안의 姓은 대표 집필자의 姓임을 밝힌다.
교학(김)-교학사(김형철), 교학(남)-교학사(남미영), 금성(윤)-금성(윤희원), 대교(박)-대교(박경신), 대교(왕)-대교(왕용문), 두산(우)-두산(우한용), 디딤(김)-디딤돌(김종철), 디딤(이)-디딤돌(이삼형), 미래(윤)-미래엔컬처그룹(윤여탁), 미래(이)-미래엔컬처그룹(이남호), 박영(송)-박영사(송하춘), 비상(조)-비유와 상징(조동길), 새롬(권)-새롬교육(권영민), 웅진(이)-웅진(이충우), 중앙(이)-유웨이중앙(이숙), 좋은책(이)-좋은책신사고(이승원), 지학(방)-지학사(방민호), 지학(이)-지학사(이용남), 창비(김)-창비(김상욱), 천재(김)-천재교육(김대행), 천재(박)-천재교육(박영목), 천재(노)-천재교육(노미숙), 해냄(오)-해냄에듀(오세영)

3) 숫자 '2'는 '2학기'를 뜻함.

작가별로 살펴보면 윤동주 작품이 6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도현의 작품이 5편 수록되어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선호하는 작가로 확인되었고 이들 작품을 보면 윤동주는 「새로운 길」,「만돌이」,「오줌싸개지도」,「햇빛, 바람」,「눈 감고 간다」,「밤」이 있고 안도현은「우리가 눈발이라면」,「철길」,「제비꽃에 대하여」,「연탄 한 장」,「살구꽃 지는 날」이 있다. 김소월은 위에서 말한「엄마야 누나야」외에도「가는 길」,「산유화」,「풀따기」등의 작품이 채택되어 김소월이라는 작가와 더불어 그의 작품 성향을 살피는 것이 다수의 검정 교과서들이 지향하는 교과의 성향과 일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외에도 도종환의 「어떤 마을」,「흔들리며 피는 꽃」,「종례시간」,「수제비」의 4작품이 7개 교과서에서 채택되었고, 김용택의 「밤편지」,「이 바쁜 때 웬 설사」,「콩, 너는 죽었다」의 3작품이 6개 교과서에서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의 발표연도별로 보면 고전시가가 13편, 1900년대 최남선의 「경부철도가」와 같은 창가도 수록되어 있고, 1920년-1930년대 18편, 1940년-1950년대 17편, 1960년-1970년대 16편, 1980년대 8편, 1990년대 24편, 2000년대 20편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연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시들이 두드러지게 많아 최근 현대시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 수록 현대 문학 제재 변천 연구를 한 조희정(2005)에 의하면 현대시 제재는 다른 갈래에 비해 특정 교육과정기에 집중되지 않고 7차 전 시기에 걸쳐 다양한 작품들이 선택되었으나 그 중 반복적으로 수록되는 작품으로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박목월의 「물새알 산새알」, 이육사의 「청포도」가 중학교 텍스트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시인 외에 주목해야 할 시인으로 윤동주를 말하고 있는데, 윤동주는 앞의 작가들과는 달리 특정 작품이 반복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1차 교과서 이후 「굴뚝」「새로운 길」「서시」「소년」「별 헤는 밤」「자화상」「참회록」등 총 7종의 작품이 9회 수록되어 단 한번도 교과서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시인 그 자체가 정전으로 간주되는 양상을 보인

다고 하였다.

새로 출판된 23종의 검정교과서 역시 위에서 말한 조희정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 틀에 꼭 맞아 떨어져 기존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시 제재로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에 이어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박목월의 「물새알 산새알」 또한 두산에서 채택하고 있고 이육사의 「청포도」도 디딤(이)와 지학(이)에 수록되어 있다. 앞서 주목했던 윤동주 작품 또한 가장 많은 작품이 여러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어교과서에는 그동안 문학사적으로 검증을 받은 또는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다고 평가되는 시인들의 중요한 작품들이 검정제 교과서에도 중점적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현대시 교육에서 정전의 역할을 하던 순수 서정시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제강점기나 모더니즘, 리얼리즘계열의 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는 7학년 학생의 성취수준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을 중심으로 최근의 작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함으로써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좀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 작품을 수록해야 한다는 실제 수업현장에서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고전시가 작품도 상당 수 수록하고 있고,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한 동시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7학년의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의 성향도 「오줌싸개지도」,「감자꽃」처럼 일제하의 억압에서 독립의 희망을 노래한 것을 비롯하여 「엄마야 누나야」처럼 시로 접하기 이전에 동요로 대중화되어 많이 불려져 1920년대 발표된 작품임에도 학생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작품뿐만 아니라 정지용, 박목월, 이응인과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정완영, 윤부현, 신형건 작가의 작품 등 다양한 동시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소설

7학년 국어 교과서 문학 제재 중 '소설'에 해당하는 7차 국정 국어교과서와 2010년 7학년부터 사용되는 23종 검정제 국어교과서를 분석하여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작가와 작품, 작품의 발표연도, 각 교과서별 수록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7학년 국정 국어 교과서 소설 수록 작가와 시대

<표 Ⅲ-4> 7학년 국정 국어 교과서 소설 수록 작가와 시대

학기	작가	작품명(발표연도)
1	폴 빌라드	이해의 선물(1960년대)
	권정생	강아지똥(1969년)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1990년)
	이준연	바람을 파는 소년(1987년)
	나도향	벙어리 삼룡이(1925년)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1980년)
	허균	홍길동전(1610년 전후)
2	웹스터	키다리 아저씨(1912년)
	황순원	소나기(1953년)
	오영수	요람기(1967년)
	하근찬	흰 종이수염((1959년)
	구인환	숨쉬는 영정(1977년)
	김철수	우산장수 할아버지
	헤르만 헤세	나비

7차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에 작품이 등장하는 작가는 국내 작가 11명과 국외 작가 3명으로 총 14명이다. 7차 교육과정기의 작가와 작품은 그동안 교육과정에서와 다른 특징으로 새로운 작품과 작가가 대거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7차에 처음 등장한 작가로 권정생, 이은성, 이준연, 나도향, 박완서, 하근찬, 구인환, 김철수의 국내작가와 국외작가 웹스터까지 총 14명의 작가 중 9명의 작가가 7차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전 교육과정기에서 수록 작품의 양상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 작품들 위주의 다양

한 시대 다양한 작품이 등장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여전히 소설제재의 정전에 해당하는 2차 교육과정기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황순원의 「소나기」나 3차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오영수의「요람기」를 비롯하여 국외 작가로 4차와 5차에 이어 다시 등장한 폴 빌라드의「이해의 선물」도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록된 작품은 17세기 고대소설을 비롯하여 191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으로는 일제강점기인 1930-1940년대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1920년대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가 일제시대를 작품의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 보다는 낭만주의 소설의 성격을 지니며 인간의 숭고하고 애절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 시대를 반영한 제재로 보기는 힘들다.

2)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소설 수록 작가와 시대

<표 Ⅲ-5>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소설 수록 작가와 시대

작가	작품명	발표 연도	교과서	수록 교과서 수
허균	홍길동전	17C	대교(왕), 미래(윤), 비상, 천재(김), 천재(박), 교학(남)2, 금성2, 대교(박)2, 디딤(이)2, 박영2, 웅진2, 중앙2, 좋은책2, 지학(방)2, 천재(노)2	15
채제공	만덕전	1824	해냄2	1
나혜석	경희	1918	지학(방)2	1
현진건	고향	1926	박영2	1
심훈	상록수	1930	대교(왕), 지학(방), 대교(박)2, 대교(왕)2	4
박영준	모범경작생	1934	지학(이)2	1
김유정	동백꽃	1936	대교(박), 비상, 지학(이)생국, 해냄생국	4
이효석	사냥	1939	천재(박)2	1
김동인	일장기의 물결	1944	비상2	1
현덕	나비를 잡는 아	1946	교학(남), 미래(윤), 웅진, 창비	4

	버지			
현덕	하늘은 맑건만	1946	미래(이), 지학(방)	2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1946	금성2, 대교(왕)2, 미래(이)2	3
채만식	이상한 선생님	1949	중앙2	1
전광용	흑산도	1955	두산2	1
황순원	학	1956	새롬2, 중앙2, 지학(방)2, 지학(이)2, 해냄2	5
하근찬	수난이대	1957	디딤(김)2, 미래(윤)2, 박영2, 신사고(이)2, 창비(김)2,	5
오영수	요람기	1958	디딤(이)2	1
오영수	누나별	1958	지학(이)생국	1
오영수	후조	1958	두산2	1
황순원	소나기	1959	교학(남), 대교(박), 박영, 디딤(이)2, 천재(김)2	5
전광용	꺼삐딴 리	1962	대교(왕)2	1
이동하	전쟁과 다람쥐	1966	웅진2	1
이오덕	꿩	1971	천재(노)생국	1
박완서	주말농장	1973	비상	1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	1980	교학(남)2	1
윤흥길	기억 속의 들꽃	1980	대교(왕)2	1
이주홍	아름다운 고향	1983	디딤(김)2	1
권정생	몽실언니	1984	천재(김), 교학(김)2, 금성2, 대교(박)2, 디딤(이)2	5
최일남	흐르는 북	1986	새롬2	1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992	디딤(이)2, 천재(박)2	2
김성칠	역사 앞에서	1993	박영2	1
안도현	연어	1996	두산2	1
오정희	소음공해	1997	디딤(김), 지학(이)	2
박상률	봄바람	1997	새롬	1
박완서	자전거 도둑	1999	교학(김), 박영, 중앙, 좋은책, 천재(노), 대교(박)2, 천재(김)2	7
전성태	소를 줍다	1999	지학(방)2	1
정호승	항아리	1999	웅진	1
이청준	선생님의 밥그릇	2000	두산	1
오승희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	2000	디딤(이)	1

김 훈		칼의 노래	2001	웅진2, 중앙2	2
위기철		아홉 살 인생	2001	교학(김)	1
성석제		약방할매	2003	대교(왕)	1
이청준		이야기 서리꾼	2003	미래(이)2	1
안도현		나비	2004	디딤(이)2	1
이현주		육촌 형	2004	해냄	1
이대흠		거미의 일기장	2005	비상2	1
김진완		아버지의 국밥	2005	금성2	1
최나미		턱수염	2005	천재(박)	1
구효서		운동화	2006	지학(방)2	1
배유안		초정리 편지	2006	금성2	1
김소연		명혜	2007	금성2, 천재(노)2	2
김원일		오마니별	2008	비상2	1
이영일		외갓집은 언제나 부잣집		비상2	1
학생작품		한여름 밤의 꿈		비상	1
국외작가	알퐁스 도데	소년 스파이	1873	지학(이)2	1
	오 헨리	20년 후	1909	디딤(이)	1
	헤르만 헤세	공작나방(나비)	1952	중앙, 해냄생국, 두산2	3
	트리나 폴러스	꽃들에게 희망을	1972	새롬2	1

7학년 검정제 23종 국어교과서에는 국내 작가 43명과 국외 작가 4명으로 총 47명 작가의 소설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가장 많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작가로는 고전소설에 있어서 정전에 해당하는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으로 15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현대소설로 7차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박완서가 중학교 교과서에 「자전거도둑」을 7종에 수록하였고, 권정생의 「몽실언니」와 하근찬의「수난이대」황순원의「소나기」와 「학」이 그 뒤를 이어 5종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국외 작가로는 5차와 7차 교육과정기에 등장한 헤르만헤세의「공작나방」이 3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국외 작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검정 국어교과서에는 기존 교육과정기에 비해 새로 등장하는 작가와 작품들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교적 고전소설 작가의 수는 적어지고 최근에 등장한 현대소설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수록되었다. 또한 전 교육과정기에 등장했던 작가이더라도 기존에 수록되었던 작품이 아닌 새로운 작품 위주로 많은 작품이 변화되어 소설 작가와 제재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예로 권정생은 7차에 새로 등장하면서 「강아지똥」으로 등장했으나 검정교과서에 권정생의 작품은 「몽실언니」로 바뀌었다. 김동인의 「무지개」와「조국」은 「일장기의 물결」로, 7차에 등장한 박상률의 「생일선물」은 「봄바람」으로, 박완서 또한 7차에 처음 등장하면서 「옥상의 민들레꽃」으로 등장했으나 검정교과서에서는 이 작품과 함께「자전거도둑」,「주말농장」,「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로, 이주홍은 3차와 4차에 수록된 「메아리」가 「아름다운 고향」으로, 하근찬은 7차에서「흰 종이 수염」이 「수난이대」로, 현진건 또한 7차에 수록되었던「운수 좋은 날」이 「고향」으로 각각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했으며, 국외 작가 또한 마찬가지로 알퐁스 도데의 1차「마지막 수업」과 5차와 6차의 「별」이 아닌 「소년 스파이」라는 작품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소설 제재로 전 교육과정기에 작품이 수록되었던 작가는 권정생, 김동인, 김유정, 박상률, 박완서, 심훈, 오영수, 오정희, 위기철, 윤흥길, 이주홍, 이효석, 채만식, 하근찬, 허균, 현덕, 현진건, 황순원과 알퐁스 도데, 헤르만 헤세 등 20명의 작가만이 해당되고 그 외 나머지 작가들은 중학교 교과서에 새로 등장한 작가들로 소설 제재에 있어 검정제 교과만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23종이 편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가별 작품 발표연도는 고대소설로 허균과 채제공의 작품, 현대소설은 1910-1920년대 2편, 1930-1940년대 1편, 1930년-1940년대 9편, 1950-1960년대 9편, 1970-1980년대 7편, 1990-2000년대 25편 등 시대별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2000년대의 작품이 눈에 띄게 많고 1990년대 보다는 2000년대 발표된 작품들이 17편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존 교육과정기에 볼 수 없었던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 교육과

정기에 반복적으로 수록된 작품이 아닌 새로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3. 수필

수필은 그 어떤 문학 갈래보다 작가의 삶과 개성이 잘 드러나는 문학작품이다. 따라서 작가가 어떤 상황에서 글을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정이다. 수필이라는 문학 장르 자체가 꼭 수필가만이 써야 하는 틀에서 자유로운 비전문적 특성 아래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시나 소설이 주로 시인, 소설가에 의해 쓰이는 것과 달리 다양한 직업, 나이, 계층에 상관없이 비전문적 작가가 쓴 경우가 많다.

단,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효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교과서의 특성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수필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수필이 실려야 한다.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필이란 수필의 가치를 판단하는 내용의 독창성, 문장력, 주제의 충실성 등의 객관적 기준과 원리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고,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데 적절하며, 작가의 높은 인품과 삶의 교훈이 나타나는 글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학 감상의 1차적 목적은 독자의 감동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필이 우선적으로 실려야 한다. 중학교 학습자가 연령과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공감을 얻고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필이 실렸을 때, 수필은 문학 작품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이진선. 2009:22) 이러한 수필 제재가 지녀야 할 조건을 바탕으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과 작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작가

제 7차 7학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제재의 작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작가

학기	작가	작품명
1	문혜영(수필가)	어린 날의 초상
	학생작품	마음으로 쓰는 편지
	학생작품	어머니의 우산
	문형동(수필가)	국물 이야기
	이금희(방송인)	촌스러운 아나운서
	이은상(시조시인)	한 눈 없는 어머니
	강희맹(조선문신)	스스로 터득한 지혜(고전수필)
	이경희(수필가)	현이의 연극
	이규태(신문기자)	내나무
	김태길(수필가)	가정 교육의 어제와 오늘
	강원룡(종교인)	30년 전의 그 날
	학생작품	시험 삼 일 전날
	안네프랑크	안네의 일기
2	법정(종교인)	먹어서 죽는다
	김소경(수필가)	약을 팔지 않는 약사
	김훈(소설가)	섬진강 기행
	서정범(수필가)	미리내
	신경림(시인)	농사말에 남아 있는 고운 우리말들
	고진하(시인)	비오리
	이범선(소설가)	도편수의 긍지
	지성찬(시인)	깨끗한 그릇

제7차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필제재의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문학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필가와 시인 소설가들의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는 방송인과 종교인, 신문기자 등 사회적 공인의 위치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작가로는 수필에 있어서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네 프랑크의 작품이 있고, 고전수필로 조선시대 문신인 강희맹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 학생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인데,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의 활동과 과정을 중시하는 열린 교과서관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이전 교육과정의 수록 작품의 작가 양상과의 차이점으로 학생작품이 다수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1학년 교과서만을 살펴보더라도 학생작품이 「마음으로 쓰는 편지」, 「어머니의 우산」, 「시험 삼 일 전날」의 3개 작품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고 제재의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작가

<표 Ⅲ-7>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작가

작가	작품명	교과서	수록 교과서 수
강래우	헬로 인디아	천재(김)2	1
강인선	우주에서 바라다보라	새롬2생국	1
강헌구	나와 다른 아이	박영2	1
계용묵	구두	금성2생국	1
공선옥	힘들다, 힘들어	지학(방)2	1
곽재구	파도를 밟으며, 아주 천천히	박영	1
	그림엽서	지학(방)	1
권근	삽과 칼과 낫을 벗으로 삼은 사람의 이야기	새롬2생국	1
권영민	내 기억 속의 책 한권	비상	1
권태선	마틴 루터 킹	새롬2생국	1
김남천	부덕이	좋은책	1
김남희	혼자 걷는 우리 국토기행	교학(남)	1
김병호	숟가락 젓가락	박영생국	1
김소경	약을 팔지 않는 약사	중앙	1
김요셉	한국어 잘하는 아이	천재(노)2생국	1
김용택	책을 따라 다니며	박영	1
	딱새, 살구, 흰 구름, 아이들, 나	비상(송)	1
김원일	새 책보	지학(방)2생국	1
김혜련	나를 사랑하는 마음	금성2생국	1
김혜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디딤(이)2생국	1
김화영	전화와 편지	미래(이)2	1
나희덕	실수	미래(윤)2	1
도완녀	싸락눈 아이스크림	새롬2생국	1
류시화	피리 부는 노인	새롬2	1
류화선	흑산도의 물고기 박사, 정약전	지학(방)	1
문건영	어머니의 편지와 감	천재(박)	1
문정희	흙을 밟고 싶다	대교(왕)	1
문혜영	어린 날의 초상	웅진	1
박동규	성장의 매듭	두산	1
박영석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갑	금성2	1
박완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미래(윤)	1
	섬진강 기행	해냄	1

박제가	묘향산소기	디딤(이)2생국	1
박지성	미역국 보다 더 따뜻한 말	금성2생국	1
박지원	큰 누님 증 정부인 박씨 묘지명	중앙	1
법정	먹어서 죽는다	교학(김), 금성, 디딤(이), 비상2, 웅진2	5
	설해목	새롬2	1
복효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해냄2	1
성석제	젊은 아버지의 추억	디딤(이)2	1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디딤(이)2	1
송하춘	춘향전을 읽었나요?	두산	1
신길우	함께 하는 삶	중앙	1
신영복	밤이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납니다	새롬2생국	1
심훈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	대교(박)2, 비상2	2
안도현	연탄이 있던 집	비상2	1
안소영	벗들이 지어 준 공부방	교학(남)	1
안철수	내 삶의 가치	대교(왕)	1
안현자	여섯 손가락 피아니스트 '예지'의 꿈	천재(노)2생국	1
양귀자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중앙	1
양묘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금성	1
엄상익	무명 소리꾼의 참사랑	두산2생국	1
엄홍길	살아 있는 한 다시 올 수 있다	천재(노)2	1
	가야 한다. 불가능은 없다	천재(박)2	1
오주환	꿈이 길을 만듭니다	창비(김)2	1
우종영	은행나무가 잃고 얻은 것	박영	1
윤문원	시간이 닿을 때까지	비상2	1
윤오영	달밤	디딤(김), 미래(윤), 해냄	3
	방망이 깎던 노인	새롬2생국	1
이경림	시금치 한 단의 추억	금성2	1
이경희	현이의 연극	대교(왕)	1
이규보	집을 수리하고(이옥설)	금성, 천재(김)	2
	토실을 허문 데 대한 설	지학(이)생국	1
이문열	새지 않은 밤	해냄2생국	1
이미경	손 끝으로 여는 세상	지학(이)	1
이오덕	돌을 주우며	새롬2생국	1
이상석	외할매 생각	창비(김)2	1
이순신	어머님을 여의고 백의종군하며	박영	1
	명량해전을 시작하며	박영생국	1

이순원	나는 중학생	미래(이)	1
	어머니는 왜 숲 속의 이슬을 떨었을까?	지학(방)	1
이시형	축복 받은 성격	웅진, 대교(왕)2생국	2
이철환	아버지의 우산	중앙	1
	풍금소리	새롬2	1
이청준	일생을 갚아야 하는 빚	교학(남)	1
이청해	인연	미래(이)2	1
이현세	해 지기 전에 한 걸음만 걷다보면	디딤(이)	1
이현주	자기 만의 몫을 찾아서	디딤(김)2	1
이희승	오척 단구	대교(왕)2	1
	청추수제	디딤(이)2생국	1
이희재	머뭇거리지말고 시작해	새롬2생국	1
임숙현	내가 꿈꾸는 세상	두산	1
장미란	고통이 너를 강하게 만들거야	천재(김)2	1
장석주	민족의 슬픔을 보듬은 시대의 소리꾼	해냄2	1
장영희	괜찮아	교학(남), 대교(박), 천재(김), 새롬2	4
	엄마의 눈물	좋은책	1
	다시 시작하기	지학(이)	1
장준하	탈출	천재(김)	1
장회익	'초승달'의 추억	미래(윤)	1
전옥표	사람은 원래부터 빛나는 존재다	두산	1
정상영	줄지어 선 다랑논, 봄의 교향악	대교(박)	1
정성화	동생을 업고	대교(박)	1
정진권	달걀 둘 셋 하나	중앙	1
	버스에서	금성2생국	1
	막내의 야구방망이	디딤(김)2, 지학(방)2	2
정채봉	별명을 찾아서	천재(박)	1
정태원	그해 여름 봉숭아 꽃물은	지학(이)생국	1
조성민	도둑으로 몰렸어요	중앙	1
차보금	최민석과 최민우	대교(왕)2	1
최병성	잡초는 없습니다	지학(이)생국	1
최성각	달려라 냇물아	창비(김)	1
최은숙	심재현, 사랑해!	박영, 금성2생국	2
최인호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라	대교(박)	1
최재천	벌레 먹은 과일 주세요	대교(왕)2	1
피천득	수필	새롬2생국	1

한비야		4월25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좋은책2	1
한은하		따뜻한 조약돌	디딤(이)2	1
함민복		그냥 내버려둬 옥수수들이 다 알아서 일어나	새롬2생국	1
홍신자		방황은 순례와 같다	대교(왕)2	1
홍우원		늙은 말과의 대화	박영2생국	1
학생작품		버스 안에서	웅진	1
		엄마의 바지	디딤(이)2생국	1
		연화, 호아렌	비상	1
		나는 소녀 가장이다	교학(김)	1
		어머니의 우산	교학(김)	1
		할머니의 눈물	천재(노)2	1
		하얀 목도리	천재(박)2	1
국외작가	마리 루이즈 피츠 패드릭	인디언의 선물	대교(왕)	1
	마하트마 간디	변호사 시절의 회상	디딤(김)2	1
	배런 호스트	비나무 이야기	두산2	1
	볼프강 작스	물질적으론 부자, 시간적으론 가난뱅이	박영2	1
	아담스	전부 무료	중앙	1
	아트 기쉬	행복한 식사	새롬2생국	1
	안네 프랑크	안네의 일기	대교(박), 천재(박), 디딤(김)2생국, 중앙2생국	4
	안톤 슈나크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지학(방)2생국	1
	오토다케 히로타다	내 인생의 스승님	해냄2	1
	자루니 숫상	자루니의 사랑 편지	교학(김)	1
	잭 캔필드	한 번에 하나	새롬2	1
		테디 베어	해냄2생국	1
	제인 구달	인간의 그늘	디딤(이)2	1
	티피드 그레	동물과 대화하는 아이 티피	새롬2생국	1
	피에르 상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박영2	1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지학(이)	1
	헬렌 켈러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	천재(박), 중앙2, 천재(김)2	3

새로운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의 작가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작가로 등장한

다. 물론 수필이라는 문학적 제재 자체가 수필가라는 전문 작가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수필의 목적이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잘 쓴 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수필의 경우 우리네 삶 속에서 발견하는 소재들에 의해 진솔함이 우러나오는 글이 더한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새 교과서에서의 작가의 분포가 문학인(수필가, 시인, 소설가, 평론가, 동화작가..)과 거의 같은 분포로 종교인, 법조인, 연기자, 의사, 컴퓨터프로그래머, 언론인, 학자, 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 것은 낯선 현상은 아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글들이 수록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폭넓은 간접 경험과 함께 감동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수필은 법정의「먹어서 죽는다」가 5곳, 안네 프랑크의 「안네의 일기」와 장영희의 「괜찮아」가 4곳, 윤오영의 「달밤」과 헬렌 켈러의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가 3곳에 실렸으며, 심훈의 「옥중에서 어머님께 올리는 글월」, 이시형의 「축복받은 성격」, 정진권의 「막내의 야구방망이」는 각각 2곳의 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교과서에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한 작가는 장영희와 정진권으로 장영희는 「괜찮아」,「엄마의 눈물」,「다시 시작하기」를 정진권은 「달걀 둘 셋 하나」,「막내의 야구방망이」,「버스에서」3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작가는 장영희로 3개의 작품에서 「괜찮아」가 다수의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서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이 가장 많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작가로 분석되었다. 왜 '장영희'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만하다. 그의 수필은 영문학자와 교수라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가 배경이 되어 세상을 향해 던지는 훈육의 글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신체적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자신의 감추고 싶은 불행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며 이를 극복해가는 체험담을 과하게 치우침 없이 전달하여 감동의 공유라는 수필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장영희의 수필에서는 남과 다른 신체구조를 가졌지만 온전한 신체를 지닌 어느 누구보다 건강한 정신력을 찾을 수 있다. 불굴의 의지가 주는 교훈과 따뜻함을 전하는 정서

가 그의 수필이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타당함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외 7차에 이어 학생작품도 다수 눈에 띄고, 고전수필 전체 8작품 중 이규보와 이순신의 작품이 각각 2편씩 수록되어 이들이 고전수필 영역에서 선호작가 임을 확인하였고, 외국작가들의 작품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으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연화, 호아렌」, 「자루니의 사랑 편지」등 2편이 학생과 외국작가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수필이라는 문학 제재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르이고 이러한 특성을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록의지라 생각된다.

3. 제재와 주제

3-1. 시

문학작품 속에서 작가가 한 편의 글을 통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사상이나 내용' 또는 '말하려는 의도'를 일반적으로 주제라고 한다. 주제는 소재와 제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글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부여해 주며, 쓰고자 하는 글의 초점을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에 반해 소재는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글의 재료로서, 주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글감, 즉 이야깃거리를 말한다. 소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주제에 알맞은 것으로 즉, 선택된 소재는 주제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하고 주제와 소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문학의 경우에는 소재가 그대로 시의 제목이 되는 경우도 많다.

김춘수(2004)는 『시론』에서 "시는 좁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넓고 큰 것이다. 자연만이 또는 자연 중의 어떤 부분만이 또한 우리 행동의 어떤 부분만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든가 하는 구속은 원래 없는 법이다. 돌멩이와 같은 무기물에서부터 하루살이와 같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시의 제재가 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1)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록 시의 제재와 주제

<표 Ⅲ-8>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록 시의 제재와 주제

제재	작품명	합계
자연물	새봄	5편
	봉선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호수	
	우리가 눈발이라면	
애정	아버지가 오실 때	2편
	엄마 걱정	
주변의 사물	바다가 보이는 교실	1편
기타	어떤 마을	1편

주제	작품명	합계
자연에 대한 동경 및 예찬	새봄	2편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애정 (그리움, 이별, 인내, 기다림, 사랑)	호수	5편
	아버지가 오실 때	
	엄마 걱정	
	봉선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상향에 대한 동경	바다가 보이는 교실	1편
현실세계에 대한 갈망	어떤 마을	1편

교과서의 제재는 학습자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제재를 담고 있어야 하고 학습자들의 사고나 언어활동을 통해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 7차 국정 국어교과서 시의 제재 범위를 기존 교육과정 체제하의 교과서 시 제재의 경향에 비추어 자연물, 애정, 사물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이에 속하지 않은 제재를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주제는 제재와 연결하여 자연에 대한 동경, 인간에 대한 애정, 이상향에 대한 동경, 현실 세계

에 대한 갈망이란 네 가지 주제로 크게 나누어 틀을 만들고 교과서에 수록된 시들을 분류해 보았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다뤄졌던 바와 같이 자연에 대해 노래하는 제재가 가장 많고, 주제는 그리움, 이별, 인내, 기다림, 사랑 등을 담고 있는 애정을 주제로 하는 것이 가장 많아 시 제재를 통해 학생들의 서정적 감성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정감적인 제재와 주제의 작품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하는 시들 또한 7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아버지와 어머니, 누님과 같은 가족에 대한 애정을 비롯하여 「우리가 눈발이라면」과 같이 상처받은 이웃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자와 같은 따뜻한 인간애를 주제로 담고 있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시의 제재와 주제

<표 Ⅲ-9>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록 시의 제재와 주제

제재	작품명	합계
자연물	새봄, 봉선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호수, 햇빛이 말을 걸다, 뻐꾹새, 감자꽃, 달팽이, 초록색 속도, 저녁에, 바다와 나비, 봉선화, 엄마야 누나야, 풀따기, 연분홍 송이송이, 콩 너는 죽었다, 바다로 간 나비, 봄, 우리가 눈발이라면, 달을 기다리며, 흔들리며 피는 꽃, 하늘, 해, 봄바람, 물새알 산새알, 풀잎, 노랑제비꽃,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 같이는, 제비꽃에 대하여, 밤, 봄 꽃피는 날, 햇빛·바람, 바다, 오우가, 별, 오동꽃, 성장, 꽃가루 속에, 해마다 봄이 되면, 꽃씨와 도둑, 해당화, 달 내놓아라~, 비, 배밭머리, 해바라기씨,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민들레, 소나기, 개화, 황조가, 한산섬 달밝은 밤에, 석류, 동창이 밝았느냐, 새야새야, 물·바람·빛, 종례시간, 청포도, 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나무 노래, 동해바다, 달·포도·잎사귀, 밤편지, 단풍, 바다3, 오라! 이 강변으로, 공무도하가, 산도화, 살구꽃 지는 날, 별(정진규), 배추의 마음, 비 오는 날, 산유화,	74편
인간에 대한 애정	엄마걱정, 웃음에 바퀴가 달렸나봐, 가는 길, 처음 안 일, 공산에 우는 접동, 무지개, 행복, 어져 내 일이여	18편

	석수할아버지, 나를 위로하는 날, 눈 감고 간다, 통곡, 하여가, 단심가, 기다림, 장편2, 내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	
주변의 사물	바다가 보이는 교실, 삭풍은 바람 끝에 불고, 연탄 한 장, 미끄럼틀,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깃발, 방 안에 혓는 촛불, 문패, 철길,	9편
기타	어떤 마을, 동서남북, 이 바쁜때 웬 설사, 동창이 밝았느냐, 수제비, 만돌이, 38도선, 3월, 새로운 길, 마음의 고향, 오줌싸개지도, 손을 기다리는 건, 경부철도가, 그 날이 오면, 농민에게 청주와 쌀밥을 금한다는 명령을 듣고, 가을 소녀들, 두만강, 발자국, 노래 만든 사람, 등대지기,	20편

주제	작품명	합계
자연에 대한 동경 및 예찬	새봄,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햇빛이 말을 걸다, 뻐꾹새, 달팽이, 초록색 속도, 연분홍 송이송이, 봄, 하늘, 봄바람, 물새 알산새알, 풀잎, 노랑제비꽃, 제비꽃에 대하여, 밤, 봄 꽃피는 날, 바다, 오우가, 별, 오동꽃, 꽃가루 속에, 민들레, 소나기, 봄은 고양이로다, 개화, 배밭머리, 해바라기씨, 꽃씨와 도둑, 달 내놓아라 달 내놓아라, 비, 석류, 종례시간, 나무노래, 달·포도·잎사귀, 단풍, 살구꽃 지는 날, 비 오는 날,	37편
인간에 대한 애정 (그리움, 이별, 인내, 기다림, 사랑)	호수, 아버지가 오실 때, 엄마 걱정, 봉선화, 우리가 눈발이라면, 가는 길, 풀따기, 달을 기다리며, 흔들리며 피는 꽃, 수제비, 처음 안 일, 공산에 우는 접동,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 같이는, 흰둥이 생각, 햇빛·바람, 마음의 고향, 무지개, 성장, 어져 내 일이여, 황조가, 기다림, 방 안에 혓는 촛불, 바다3, 공무도하가, 내 마음은, 철길, 기다리는 마음, 저녁에, 나무, 저녁에, 우리가 눈발이라면, 새로운 길, 풀잎에, 상처가 있다, 나를 위로하는 날, 손을 기다리는 건, 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동해바다, 별(정진규), 등대지기, 장편2, 산유화,	42편
이상향에 대한 동경	바다가 보이는 교실, 바다와 나비, 깃발, 산도화,	4편
현실세계에 대한 한탄 및 갈망	어떤 마을, 감자꽃, 동서남북, 엄마야 누나야, 바다로 간 나비, 해, 38도선,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해마다 봄이 되면, 해당화, 청포도, 눈 감고 간다, 물·바람·빛, 통곡, 오줌싸개지도, 그 날이 오면, 농민에게 청주와 쌀밥을 금한다는 명령을 듣고, 두만강, 오라! 이 강변으로,	19편

기타	웃음에 바퀴가 달렸나봐, 이 바쁜 때 웬 설사, 콩 너는 죽었다, 동창이 밝았느냐, 만돌이, 3월, 낙타, 미끄럼틀, 한산섬 달밝은 밤에, 석수할아버지, 새야새야, 하여가, 단심가, 경부철도가, 가을 소녀들, 발자국, 문패, 배추의 마음,	18편

새로 개정된 검정 교과서 또한 국정체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시 작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과서에 다수 수록되어 있던 제재와 주제를 선정한 틀을 놓고 그 안에 23종 교과서에 수록된 하나하나의 작품들의 제재와 주제를 찾아 분류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작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작품 제재면에서는 자연물이 74편으로 소재의 빈도로는 실체적 자연물이나 계절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외에 소수의 다른 소재들을 삼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이고, 또 자연의 질서는 꾸밈이 없고 아름답기에 학생들의 정서와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에 교육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록한 시들이 많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자연친화적인 소재에의 치중이 학생들로 하여금 시의 소재에 대한 고정된 틀을 제공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학생들이 좋은 시작품을 많이 읽는 것의 의미를 영국의 작가 보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고, 감성세계를 풍부하게 해주기 위함이며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날카로운 직관력을 갖게 해주기 위함이다. 또한 예리한 비판력을 길러주기 위함이고, 언어의 신비스러운 기능을 체득시키기 위함이며, 시를 통해 왕성한 생명력과 상상력을 부여해주기 위함이고, 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시를 읽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문학 제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와 더불어 문학을 통해 학습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사고를 확장시키고자 할 때 자연만이 아닌 다양한 인간세계와 사회의 체험을 시의 소재로 취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의 사고의 확대와 개방을 통하여 현실 생활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을 확대하고, 생생한 정서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소재의 시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

주제면에서는 현실세계에 대한 한탄이나 갈망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보다 7학년

중학생의 수준에 적정한 자연에 대한 동경이나 예찬과 함께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그리움, 이별, 인내, 기다림, 사랑 등의 서정적인 주제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제재에서는 자연물을 제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실제로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에 대한 동경이나 예찬보다는 자연의 제재를 '님'으로 대체하여 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 인내, 기다림 등의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들이 많았으며,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나 현실세계에 대한 갈망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들은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이 대개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주제면에서 작품들을 살펴볼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자연과 계절의 신비와 서정, 삶에 대한 태도가 주로 나타나 내면을 중시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면의 자기성찰이나 인간관계를 주제로 하는 작품은 자연물을 주제로 하는 것에 비해 희망하는 상기된 정서에서 차분히 정돈된 심상을 느낄 수 있다.

3-2. 소설

시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원관념, 심상, 제재, 주제 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 이 인물이 나타남에 따라 글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등이 중요하고 하나의 이야기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진술인 이야기 보다는 플롯 즉, 인과관계에 중점을 둔 사건의 서술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 · 수필과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해 소설을 단순히 제재와 주제로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영역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에 의해 소설을 분류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봄으로써 소설 전체의 얼개를 재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소설 제재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심리와 갈등, 정서와 분위기, 역사적 상황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제재의 경우, 기타로 분류할 것을 가정하고 분석을 시작하였다.

1) 7학년 국정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의 분류

<표 Ⅲ-10> 7학년 국정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의 분류

제재 (성취기준)	작품 제목-주제	합계
심리와 갈등	바람을 파는 소년(현대/단편)-전통문화계승에 대한 자부심	5편
	벙어리 삼룡이(근대/단편)-벙어리 삼룡이의 순수한 사랑	
	소나기(현대/단편)-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나비(단편/1인칭주인공)-친구의 나비를 훔쳤던 한 소년의 정신적 성숙과정	
	이해의 선물(현대/단편)-어린이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이해의 마음	
정서와 분위기	요람기(현대/단편)-천진 난만한 산골 소년의 생활과 추억	4편
	우산 장수 할아버지(단편/동화)-우산 장수 할아버지의 봉사정신	
	강아지똥(현대/단편/동화)-어떤 사물이라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키다리 아저씨(현대/단편/동화)-키다리아저씨의 따뜻한 마음과 소녀의 성장	
역사적 상황	소설 동의보감(현대/장편)-어려운 사람을 위한 희생, 봉사하는 삶의 가치	5편
	홍길동전(고전/단편)-적서차별제도의 타파와 입신양명에 대한 의지	
	옥상의 민들레꽃(현대/단편)-현대인의 물질만능주의 반성과 인간적 가치의 회복	
	흰 종이수염(현대/단편)-민족 수난과 그것에 대한 극복의지	
	숨쉬는 영정(현대/단편)-이산가족의 슬픔과 한	

7차 7학년 국어교과서의 소설 제재를 성취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심리와 갈등에 관한 제재와 역사적 상황을 다룬 제재로 각각 5편씩, 정서와 분위기를 다룬 제재를 4편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교사용 지도서 총론에서는 작품 선정에 있어서 '단원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학습 활동의 자료로 적합한 글, 교과서 전체적으로 보아 너무 한 쪽 장르로 편중 되지 않는 글, 그 내용이나 주제에 학생들이 강한 호기심을 가질 만한

글, 글의 이독성이 학생 수준에 적합한 글, 제재의 내용이 학생의 일상생활과 괴리되지 않는 글,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가치 측면에서 교육적인 글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였다(교육부. 2001)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어른의 배려심과 소년·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이해의 선물」, 「소나기」를 비롯하여 「바람을 파는 소년」,「벙어리 삼룡이」,「나비」등은 문학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주인공의 심리와 갈등이 나타나 있고, 정서와 분위기는 「요람기」를 비롯하여 3편, 「흰 종이 수염」과「숨쉬는 영정」을 비롯하여 3편은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함에 목표를 두고 선정 수록된 작품들이다.

2)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의 분류

<표 Ⅲ-11>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의 분류

제재 (성취기준)	작품 제목-주제	합계
심리와 갈등	동백꽃(현대/단편)-산골 소년소녀의 목가적이고 순박한 사랑	16편
	꿩(현대/단편)-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자세	
	소나기(현대/단편)-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나비(단편)-친구의 나비를 훔쳤던 한 소년의 정신적 성숙과정	
	할머니를 따라 간 메주(현대/단편)-할머니와 어머니의 갈등	
	턱수염(현대/단편)-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과 화해	
	나비를 잡는 아버지(현대/단편)-아버지에 대한 사랑	
	20년 후(현대/단편)-친구와의 우정과 융통성	
	하늘은 맑건만(현대/단편)-정직하게 얻지 못한 돈으로 인한 갈등과 극복	
	공작나방(단편/1인칭주인공)-친구의 나비를 훔쳤던 한 소년의 정신적 성숙과정	
	사냥(현대/단편)-인간의 이기적 행동	
	흑산도(현대/단편)-허무를 극복하려는 어민들의 애환	
	소를 줍다(현대/단편)-소를 둘러싼 부자간의 갈등과 사랑	
	흐르는 북(현대/중편)-세대간의 갈등과 화합모색	

	학(단편)-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간애의 실현	
	소년스파이(단편)	
정서와 분위기	봄바람(현대/장편)-어느 섬 마을 소년의 꿈과 좌절	16편
	약방 할매(현대/단편)-약방 할매	
	누나별(현대/단편)-고향에 두고 온 누나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	
	아홉 살 인생(중편/성장)-여러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	
	우정의 길(민담)-진정한 우정의 의미	
	한여름 밤의 꿈(현대/단편)-이기적인 자신에 대한 반성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현대/단편)-40-50년대 성장기를 다룬 자전적내용	
	연어(현대/단편)	
	나비(현대/단편)성장소설	
	요람기(현대/단편)-천진난만한 산골 소년의 생활과 추억	
	거미의 일기장(현대/단편)	
	압록강은 흐른다(장편/성장)-개화기의 여러 양상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외갓집은 언제나 부잣집(현대/단편)	
	이야기 서리꾼(현대/단편/동화)	
	만덕전(고전/단편)-제주여인 김만덕의 백성규휼이야기	
	꽃들에게 희망을(단편)-희망	
역사적 상황	몽실언니(현대/단편)-인간애	26편
	상록수(현대/장편)-농촌계몽을 하는 남녀의 순결한 애정과 헌신적 의지	
	육촌형(현대/단편)-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	
	항아리(현대/단편)-38도선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한탄	
	홍길동전(고전/단편)-적서차별제도의 타파와 입신양명에 대한 의지	
	일장기의 물결(현대/단편)-조선학도병의 전쟁참여의지의 독려	
	명혜(현대/단편)-개화기 여성의 자아찾기	
	오마니별(현대/단편)-분단이 빚어낸 비극	
	역사 앞에서(현대/단편)-6.25전쟁에 대한 기록	
	아버지의 국밥(현대/단편)-전쟁을 겪는 인간의 참상	

	칼의 노래(현대/장편)-이순신을 통해 본 리더쉽	
	경희(현대/단편)-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여성의 자각	
	모범경작생(현대/단편)-일제 피폐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초정리편지(현대/단편)-세종대왕 훈민정음창제의 의의	
	기억속의 들꽃(현대/단편)-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전쟁과 다람쥐(현대/단편)-전쟁을 대하는 소년	
	아름다운 고향(현대/장편)-일제시대를 살던 소년 성장소설	
	이상한 선생님(현대/단편)-기회주의적인 지식인을 풍자	
	수난이대(단편)-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수난극복의 의지	
	꺼삐딴 리(현대/단편)-시류와 타협하면서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 변절적으로 순응해가는 기회주의적 인간 비판	
	고향(단편/액자)-일제 치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	
	자전거도둑(현대/단편)-소년이 맞닥뜨리는 현대 사람들의 부도덕성 고발	
	주말농장(현대/단편)-도시상류여성들의 허위와 허영	
	소음공해(현대/단편)-이웃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비판	
	옥상에 핀 민들레꽃(현대/단편)-현대인의 물질만능주의 반성과 인간적 가치의 회복	
	후조(현대/단편)-각박한 현실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따뜻한 인정	

7차 검정 교과서의 소설 편성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작가와 함께 새로운 작품들이 대거 등장했음은 위의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이처럼 그동안 국정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지는 못했지만 학교 수업현장에서 열린 교과서관에 의해 현실성과 그 내용이나 주제에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만한 제재의 선정과 관련하여 꾸준히 활용되어 오던 다양한 성향의 작품들이 새로운 검정제 교과서에 반영된 것은 학습자가 소설이라는 문학 제재를 자신의 주변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친근감에서 비롯된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읽는 과정을 통해 문학교육에서 추구하는 감상 능력과 표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의 자각에 의해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삶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흥미, 사고

능력 수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성취기준에 따른 작품들도 이러한 목적성을 반영하여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성취기준으로 분석된 작품이 26편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작품들은 심리와 갈등에 관한 작품으로 16편, 정서와 분위기에 관련된 작품으로 16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작품의 갈래에 있어 고전소설 보다는 현대소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장편소설보다는 단편소설 중심으로 7학년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동화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7차 교육과정기에는 학생 작품을 적극 활용하여 생각 넓히기, 보충·심화의 단계를 통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수준의 읽을거리를 제공하였으나 검정제 교과서에서 이러한 시도가 여러 교과서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점이다. 이러한 시도가 주는 의미는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단계를 넘어 직접 창작할 수 있게 하는데 창작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창함의 두려움을 없애는 꼭 필요한 학습활동이라 생각된다.

3-3. 수필

1)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록 수필의 제재와 주제

<표 Ⅲ-12>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록 수필의 제재와 주제

제재	작품 제목(주제)	합계
자신의 경험 (나와 가족)	어린 날의 초상(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10편
	마음으로 쓰는 편지(이성 문제에 대한 고민상담)	
	어머니의 우산	
	촌스러운 아나운서(나다움의 소중함)	
	한 눈 없는 어머니(효의 참된 의미)	
	스스로 터득한 지혜	
	현이의 연극(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시험 삼 일 전날	
	안네의 일기(나치의 탄압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고통)	

	미리내(어린 시절 은하와의 아름다운 추억)	
주변의 현상 (이웃·사회·자연)	국물 이야기(인정이 메말라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8편
	가정교육의 어제와 오늘	
	30년 전의 그 날(영혼의 순수함을 지키자)	
	먹어서 죽는다(채식위주의 식생활로 돌아가자)	
	약을 팔지 않는 약사(이웃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비오리(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도편수의 긍지(옛 사람들의 일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감, 긍지)	
	깨끗한 그릇(나라를 위한 깨끗하고 쓸모있는 인재)	
주변의 사물 (여행기)	내나무(내나무 풍속에 대한 그리움)	2편
	섬진강 기행	
기타	농사말에 남아 있는 고운 우리 말들 (우리말 어휘의 풍부함과 아름다움)	1편

표를 통한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수필을 살펴보면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경험과 체험,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관찰, 인생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 등을 제재로 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은 학생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의 현상과 관련된 제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제재로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회상이 바탕이 되어 그리움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서정적 성격의 수필들이다. 이러한 수필의 주제는 대부분 제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정서의 표현으로 교훈적 성격이 강하다.

학생들이 중심 제재를 통해 쉽게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수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연령과 시기에 고민할 수 있는 제재를 선택함으로서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으로 「마음으로 쓰는 편지」나「시험 삼 일 전날」등으로 학생들과 비슷한 시기에 겪은 작가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작가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작품 전체를 살펴볼 때 제재와 주제면에서는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록 수필의 제재와 주제

<표 Ⅲ-13>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록 수필의 제재와 주제

제재	작품 제목(주제)	합계
자신의 경험 (나와 가족)	딱새, 살구, 흰 구름, 아이들, 나(창 밖 풍경의 아름다움)	45편
	어머니의 편지와 감(어머니의 깊은 사랑)	
	어린 날의 초상(가족의 소중함과 그리움)	
	성장의 매듭(삶의 소중한 계기)	
	내 삶의 가치(호기심과 노력, 독서의 중요성)	
	현이의 연극(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나는 중학생(중학생이 되어 느끼는 감정과 각오)	
	어머니는 왜 숲 속의 이슬을 떨었을까?(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축복 받은 성격(성격의 장·단점과 극복 의지)	
	아버지의 우산(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	
	해 지기 전에 한 걸음만 걷다보면(우직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	
	엄마의 눈물(모성애의 위대함)	
	다시 시작하기(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탈출(일본군부대 탈출하여 광복군이 되기까지)	
	사람은 원래부터 빛나는 존재다(자신에 대한 믿음)	
	동생을 업고(어릴 적 동생을 업던 추억을 회상)	
	별명을 찾아서(어린 시절 별명을 통한 동심의 세계 반추)	
	도둑으로 몰렸어요(누명을 썼던 경험)	
	달려라 냇물아(생명의 소중함)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라(낙관적인 삶의 자세와 현실인식)	
	나는 소녀 가장이다(소녀가장의 긍정적 삶의 자세)	
	어머니의 우산(어머니의 사랑과 고마움)	
	전부 무료(부모님의 사랑)	
	시금치 한 단의 추억(정직이 사라져가는 사회의 안타까움)	
	미역국보다 더 따뜻한 말(말과 칭찬의 힘)	
	나를 사랑하는 마음(나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조국독립에의 강한 의지와 어머니에 대한 위로)	
	오척단구(작은 키가 주는 손해와 당당함)	
	변호사 시절의 회상(유색인으로 당한 봉변)	
	막내의 야구 방망이(야구시합을 통해 단결심을 배운 아이들)	
	따뜻한 조약돌(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	
	젊은 아버지의 추억(아버지에 대한 회상 및 존경)	
	엄마의 바지(엄마에 대한 사랑)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자연, 본능에 맡겨라)	

	실수	
	연탄이 있던 집	
	시간이 닿을 때까지(가족의 소중한 사랑)	
	우주에서 바라다보라(담대한 삶의 자세)	
	힘들다, 힘들어	
	외할매 생각	
	고통이 너를 강하게 만들거야	
	여섯 손가락 피아니스트 '예지'의 꿈	
	할머니의 눈물	
	하얀 목도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주변현상 (이웃·사회·자연)	그림엽서(맹인부부를 통해 본 삶의 의미)	73편
	부덕이(인간과 동물의 교감)	
	숟가락, 젓가락(문화의 차이)	
	약을 팔지 않는 약사(이웃사랑)	
	흑산도의 물고기 박사, 정약전	
	흙을 밟고 싶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춘향전을 읽었나요?(진실한 삶의 추구)	
	함께 하는 삶	
	벗들이 지어준 공부방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아름다움)	
	달밤(달밤의 정취와 따뜻한 인간의 정)	
	먹어서 죽는다(채식위주의 식생활로 돌아가자)	
	집을 수리하고(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용성)	
	토실을 허문 데 대한 설(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추구)	
	손끝으로 여는 세상(훈민정음을 완성하기까지 박두성의 삶)	
	어머님을 여의고 백의종군하며(나라를 위하는 마음)	
	명량해전을 시작하며	
	일생을 두고 갚아야 하는 빚(따뜻한 이웃의 인정과 고마움)	
	내가 꿈꾸는 세상(자신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삶)	
	괜찮아(삶과 희망을 일깨워 준 말과 배려)	
	그 해 여름 봉숭아 꽃물은(인간과 동물의 교감)	
	잡초는 없습니다(인간의 무지와 편견으로 잡초를 무시하지마라)	
	심재현, 사랑해!(나누는 삶)	
	버스 안에서(나눌수록 행복한 삶)	
	연화, 호아렌(두 이름을 가진 소녀의 갈등과 꿈찾기)	
	인디언의 선물(용서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인디언들의 용기)	
	안네의 일기(유대인 소녀 안네프랑크의 일기)	
	자루니의 사랑 편지(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라다크 사람들의 공존하는 삶의 자세)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언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기쁨)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베푸는 삶의 중요성)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갑(에베레스트산 등반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낀 따망의 따뜻한 마음)	
	버스에서(장애인 청년의 아픔)	
	구두(인간 관계가 왜곡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벌레 먹은 과일 주세요(벌레 먹은 과일이 더 아름답다)	
	최민석과 최민우	
	방황은 순례와 같다	
	축복받은 성격(단점을 극복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삶의 자세)	
	비나무 이야기(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자)	
	무명 소리꾼의 참사랑	
	자기만의 몫을 찾아서(자기만의 주어진 역할이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인간에 대한 사랑)	
	해바라기를 뛰어넘지 못한 까닭(지속성에 대한 교훈)	
	인연(개와의 인연)	
	전화와 편지(육필의 아름다움)	
	물질적으론 부자, 시간적으론 가난뱅이(정신적 풍요로움의 추구)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현대인의 삶에 대한 반성과 자아성찰)	
	나와 다른 아이	
	늙은 말과의 대화(자기위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세대비판)	
	피리부는 노인(작은 베품에 보답하는 삶의 자세)	
	그냥 내버려둬 옥수수들이 다 알아서 일어나	
	설해목(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	
	밤이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납니다(희망하는 것을 잃지 않는 자세)	
	한번에 하나(큰 차이와 작은 차이)	
	풍금소리(이웃들의 아름다운 사랑)	
	행복한 식사(환경을 파괴하지 않은 공동체를 위한 삶)	
	삽과 칼과 낫을 벗으로 삼은 사람의 이야기(삼우설)	
	돌을 주우며(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	
	방망이 깎던 노인(장인정신의 숭고함)	
	싸락눈 아이스크림(자연의 아름다움)	
	동물과 대화하는 아이 티피(동물에 대한 사랑)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살아가며 느끼는 작은 슬픔과 허망함)	
	새 책보(이웃의 사랑)	
	꿈이 길을 만듭니다.	

	살아 있는 한 다시 올 수 있다	
	한국어 잘하는 아이	
	가야한다 불가능은 없다	
	내 인생의 스승님	
	새지 않은 밤(참다운 부끄러움)	
	테디 베어(이웃의 따뜻한 사랑)	
주변의 사물 (여행기)	파도를 밟으며, 아주 천천히	7편
	혼자 걷는 우리 국토기행	
	생각하면 그리운 땅-섬진강 기행	
	줄지어 선 다랑논, 봄의 교향악(남해도 기행문)	
	묘향산소기(묘향산 유람기)	
	4월25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헬로, 인디아	
기타	내 기억 속의 책 한권(독서의 효용)	10편
	책을 따라 다니며(독서의 중요성)	
	“초승달”의 추억(“초승달”책과의 특별한 경험)	
	달걀 둘 셋 하나(달걀에 얽힌 이야기)	
	은행나무가 잃고 얻은 것	
	인간의 그늘(침팬지 이야기)	
	청추수제(가을날의 단상 노래)	
	마틴 루터 킹	
	수필(수필의 본질과 특성)	
	민족의 슬픔을 보듬은 시대의 소리꾼	

새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필의 제재와 주제를 7차 국정교과서를 분류한 자신의 경험, 주변 현상, 주변 사물을 비롯한 여행기, 기타로 나누고 23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필의 제재와 주제를 분류한 결과 이웃, 사회, 자연을 소재로 한 주변 현상이 73편, 자신과 가족을 소재로 한 자신의 경험이 45편, 그 외 주변 사물이나 여행기를 다룬 수필이 7편이고 위의 제재에 속하지 않은 작품들이 10편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이웃과 사회, 자연을 다룬 주변 현상에 대한 수필들은 사회 보다는 이웃과 자연에 대한 제재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7학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사회를 제재로 삼은 이야기는 학생들이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제재라는 생각에 그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이웃과 자연, 가족과 자신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고 생각한다. 가족에 대한 수필 제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부모로 그 중에서도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제재

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어머니는 가난하고 배움이 적으며, 도시의 세련되고 강요하는 모습이 아닌 자식의 성공을 위해 무조건적인 인내와 사랑을 지닌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행기를 담고 있는 기행수필은 교과서 수필 제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제재로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도 소수 있었고 책읽기와 관련된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주제의 수필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나누고 베푸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이야기한 주제가 많고 자연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살아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존중하자는 내용으로 대부분 수필에 등장하는 계층은 대부분 민초에 해당하는 보통 서민과 하층민들로 이들의 삶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들이 많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닌 살아가는 과정에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수록되고,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자세를 다룬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는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바람직한 정신적 성장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외 인식과 비판이 다음 빈도를 차지하며 예찬과 동경, 삶의 지혜와 철학 등의 주제별 빈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필의 주제는 강요되는 것이 아닌 저절로 스며드는 특징이 있는 문학 제재로 작가의 서술을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주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저절로 전해지게 되기에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문학 제재로 좀 더 폭넓은 재제와 주제의 작품들이 앞으로의 교과서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문학 제재별 단원 통합 양상

국어 교과서에서 문종별 수록 단원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학습과 관련하여 이를 고려한 제재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의 6영역 체

제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을 4영역 체제로 변환하고자 하는 모색이 있었다. 이러한 기획의 의도는 국어과 교육 내용의 체계성, 입체성, 포괄성 강화와 언어활동(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과 '문법', '문학'간의 유기적 관련성 강화, 학문 공동체 간의 소통성 강화(문학 읽기와 읽기의 대화, 문학 쓰기와 쓰기의 대화, 문법과 쓰기의 대화 등)와 더불어 '문학', '문법'과 언어활동의 통섭을 통한 학습량 축소 및 언어활동의 폭과 깊이의 확대를 기대한 의도였으나 개정 7차에서는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기획의도를 살펴보면 국어 활동의 총체성과 통합성을 강조한 영역 간, 내용 요소 간 통합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반영여부를 살피기 위해 각 문종별 수록 제재가 전체 교과서의 단원 구성상 어느 단원에 수록되어 있고 내용범주 간에 어떠한 통합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1. 시

1) 7학년 국정 국어 교과서 시 수록 단원 영역

<표 Ⅲ-14>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시 수록 단원영역

학기	영역	대단원명	소단원명
1	문학	1. 문학의 즐거움	(1)새 봄/김지하
	문학	3. 문학과 의사소통	(3)호수/정지용
	문학	7. 문학과 사회	생각넓히기. 1.아버지가 오실 때/하대원 2.엄마 걱정/기형도
2	문학	2. 문학의 아름다움	(1)바다가 보이는 교실/정일근
	문학	4. 시의 세계	(1)봉선화/김상옥
			(2)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3)어떤 마을/도종환
			(4)우리가 눈발이라면/안도현

7차 국정 국어교과서는 국어교과서와 생활국어 2권으로서 학년별 내용을 국어교과서에는 '읽기'와 '문학'을 생활국어에서는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위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7차 국정 국어교과서의 모든 시 제재들은 일괄적으로 문학영역 단원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문학의 즐거움, 문학과 의사소통, 문학과 사회, 문학의 아름다움, 시의 세계라는 대단원이 요구하고 있는 학습활동도 그 세부적인 성취기준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단순히 문학의 한 영역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로 '3단원 문학과 의사소통'만 하더라도 문학-듣기-말하기-쓰기-읽기-문법의 모든 영역이 통합되어야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문학'의 한 영역에만 국한시켜놓은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를 통합하고 사고와 학습을 통합하며, 이를 위해 활동을 통합하고 시간을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뒷받침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시' 수록 단원 영역

<표 Ⅲ-15>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시 수록 단원 영역

교과서	학기	영역	대단원명	소단원명
교학(김)	1	문학	1. 시와 노래의 어울림 -시어의 특성과 노랫말	(1)엄마야 누나야/김소월 (2)저녁에/김광섭 (3)어떤 마을/도종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2	문학	1. 시가 내 마음에 들어오다 -시의 정서와 분위기	(1)황조가/유리왕 (2)엄마 걱정/기형도 (3)풀잎/박성룡 (4)시조 두 편 ▪한산섬 달 밝은 밤에/이순신 ▪어져 내 일이야/황진이
교학(남)	1	문학	1. 문학과의 만남	(1)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해/박두진 ▪배밭 머리/정완영 ▪꽃씨와 도둑/피천득

	2	문학	1. 시의 아름다움	(1)엄마야 누나야/김소월 (2)어떤 마을/도종환 (3)풀잎에도 상처가 있다/정호승 <생활국어> ▪저녁에/김광섭 ▪풀잎/박성룡
금성 (윤)	1	문학	2. 마음의 노래	(2)정서와 분위기 ▪엄마 걱정/기형도 ▪우리가 눈발이라면/안도현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봄 꽃피는 날/용혜원 (3)시의 운율 ▪봉선화/김상옥 ▪봄은 고양이로다/이장희 ▪민들레/이응인 <생활국어> ▪이 바쁜 때 웬 설사/김용택 ▪해/박두진
대교 (박)	1	문학	1. 글과 말의 즐거움	(1)노랑 제비꽃/반칠환 <생활국어> ▪콩, 너는 죽었다/김용택 ▪소나기/이의리
	2	문학	1. 맛있는 말	(1)별/이병기 (2)석류/최병홍 (3)하늘/박두진 (4)흔들리면 피는 꽃/도종환 ▪연탄 한 장/안도현
		문학, 문법		<생활국어> (1)시와 노랫말 ▪석수 할아버지/정완영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문학	3. 시대의 거울을 보다	(3)봄은/신동엽 ▪오라! 이 강변으로/홍윤숙
대교 (왕)	1	문학	1. 문학의 빛깔과 향기	(1)초록색 속도/김광규 (2)해마다 봄이 되면/조병화 <생활국어>

				▪흔들리며 피는 꽃/도종환
	2	쓰기, 문학	1.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1)엄마야누나야/김소월 (2)저녁에/김광섭 <생활국어> ▪제비꽃에 대하여/안도현 ▪옛시조/남구만 ▪별/이병기 ▪새야새야/작가미상 ▪나를 위로하는 날/이해인
		문학, 말하기	5. 문학과 인터넷에 담긴 세상	<생활국어> (1)역사적 상황 파악하기 ▪눈 감고 간다/윤동주 ▪물, 바람, 빛/조태일 (2)인터넷 토론하기 ▪통곡/이상화
두산 (우)	1	문학, 듣기	4. 마음의 창을 열고	(1)하늘 ▪하늘/박두진 (2)우리 노래의 아름다움 ▪어져 내 일이여/황진이 ▪별/이병기 ▪풀따기/김소월 ▪연분홍 송이송이/김억 ▪물새알 산새알/박목월 <생활국어> ▪해마다 봄이 되면/조병화 ▪개화/이호우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2	문학	2. 세상으로 열린 길	▪엄마걱정/기형도 <생활국어> (2)문학에 담아낸 현실 ▪오줌싸개지도/윤동주
디딤 (김)	1	문학	1. 정서와 가락	(1)굴뚝/윤동주 (3)창 내고자 (4)엄마야 누나야/김소월 <생활국어> ▪별/이병기

				▪달 내놓아라 달 내놓아라/황상순
	2	문학, 듣기	2. 역사와 이야기	(1)하여가/이방원, 단심가/정몽주
디딤 (이)	1	문학, 쓰기	1. 우리말의 맛과 멋	(1)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2)별/이병기 <생활국어>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 같이는/ 복효근
	2	문학	1. 정서와 분위기	(1)밤/윤동주 (2)가는 길/김소월 (3)종례시간/도종환 ▪송아지가 아프면/손동연 <생활국어> 1. 시의 정서와 분위기 ▪콩, 너는 죽었다/김용택 ▪엄마 걱정/기형도 ▪손을 기다리는 건/신형건 ▪기다림/피천득
		문학	4. 문학과 역사	(1)시조 두 편 ▪하여가/이방원 ▪단심가/정몽주 (3)청포도/이육사 <생활국어> 1. 문학작품과 시대상황 ▪경부철도가/최남선 ▪엄마걱정/기형도 ▪문패/김상옥
미래 (윤)	1	읽기, 문학, 쓰기	1. 글 속에 숨쉬는 삶	(1)해바라기 씨/정지용
		문학, 듣기, 말하기	6. 문학과의 대화	(1)동서남북/김광규
	2	문학, 쓰기, 말하기	1. 작품 속으로의 여행	(1)엄마걱정/기형도 (2)어이 못 오던가/작자미상 ▪오솔길/최승호

미래 (이)	1	문학, 쓰기	2. 시와 노래	(1)별/이병기 (2)엄마야 누나야/김소월 (3)풀잎/박성룡 (4)바다로 간 나비/김종길 (5)밤/오탁번 ▪개화/이호우 ▪행복/허영자 <생활국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굴뚝/윤동주 ▪낙타/이한직
	2	문학, 읽기, 쓰기	2. 내 친구, 동물과 식물	(1)양/오장환 ▪말/정지용
박영 (송)	1	문학, 쓰기	4. 문학과 정서	(1)어린 날의 시 ▪만돌이/윤동주 ▪엄마 걱정/기형도 ▪꽃씨와 도둑/피천득 <생활국어> ▪수제비/도종환 ▪미끄럼틀/전봉건
	2	문학, 읽기, 쓰기	3. 문학과 노래	(2)서정시와 운율 ▪가는 길/김소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가을낙엽/박재영(학생작품)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생활국어>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김영랑
		문학	5. 문학과 시대현실	▪그날이 오면/심훈 ▪농민에게 청주와 쌀밥을 금한다는 명령을 듣고/이규보
비상 (조)	1	문학	2. 분위기와의 어울림	(2)눈시울이 뜨거워 ▪엄마 걱정/기형도 ▪햇빛,바람/윤동주

				▪행복/허영자 ▪아버지1/임길택
	2	문학, 쓰기, 말하기	1. 마음을 나누는 노래	(2)노래를 불러요 ▪나무 노래/작가 미상 (3)시는 아름다움이다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김영랑 ▪연분홍 송이송이/김억 ▪물새알 산새알/박목월 ▪개화/이호우 (4)생각이 시가 되고, 시는 노래가 되다 ▪연탄 한 장/안도현 ▪어떤 마을/도종환 <생활국어> ▪개화/이호우
새롬 (권)	1	문법, 문학	2. 말도 옷을 입는다	(2)시는 노래가 되어 ▪감자꽃/권태응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동창이 밝았느냐/남구만
		문학	4. 문학의 안팎 드나들기	(1)정서와 분위기 ▪연분홍 송이송이/김억 ▪달을 기다리며/능운 ▪웃음에 바퀴가 달렸나봐/김기택 ▪바다와 나비/김기림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같이는/복효근 <생활국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해/박두진 ▪연탄 한 장/안도현
	2	말하기 쓰기, 문법	3. 사람을 이어주는 말과 글	<생활국어> (2)격려와 위로 ▪깃발/유치환 ▪그 날이 오면/심훈
웅진 (이)	1	문학	1. 마음의 풍경	(1)마음으로 읽는 시 ▪봄/김춘수

				▪이 바쁜 때 웬 설사/김용택 <생활국어> ▪바다가 보이는 교실/정일근
	2	문학, 쓰기	3. 시는 노래가 되어	(1)방 안에 혓는 촛불/이개 (2)가을 소녀들/양정자 (3)하늘/박두진 <생활국어>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동해바다/신경림 ▪달,포도,잎사귀/장만영 ▪풀잎/박성룡 ▪나무타령/구전민요
중앙 (이)	1	문학	2.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1. 마음을 열고 (1)새로운 길/윤동주 (2)꽃가루 속에/이용악 (3)행복/허영자 2. 노래에 실어 (1)하늘/박두진 (2)저녁에/김광섭 (3)개화/이호우
	2	문학	6. 문학으로 세상 엿보기	3. 나의 꿈, 우리의 소망 (1)밤편지/김용택 <생활국어> ▪단풍/류근삼
좋은책 (이)	1	문학	1. 마음을 담은 글	(1)꽃 한 송이/문정희 (2)성장/이시영 ▪3월/오세영
	2	문학	2. 세상을 담은 이야기	(2)두만강/김규동 <생활국어> ▪가는 길/김소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지학 (방)	1	문학, 말하기	1. 시와 노래	(1)엄마야 누나야/김소월 (2)비/황인숙 (3)저녁에/김광섭 (4)오우가/윤선도 ▪봄은 고양이로다/이장희

				<생활국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2	문학, 쓰기	1. 마음의 빛깔	(1)발자국/김명수 ▪해/박두진 <생활국어> (1)문학작품의 정서와 분위기 ▪바다3/정지용 ▪빨간 우체통/하덕향(학생)
		문학, 듣기	3. 문학에 스며든 역사	(1)문패/김상옥
지학 (이)	1	문학	1. 문학에서 느끼는 정서와 분위기	(2)두 가지 빛깔의 그리움 ▪풀따기/김소월 ▪무지개/이시영 ▪바다/윤부현 (3)고요한 아름다움 ▪오동꽃/이병기 <생활국어> ▪해당화/한용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정현종
	2	문학, 말하기	3. 역사 앞의 인물, 변화하는 인간	(1)문학에 그려진 시대 상황 ▪오라! 이 강변으로/홍윤숙 <생활국어> (1)시대 상황과 인물의 대응방식 ▪청포도/이육사
		문학, 쓰기	6. 마음을 담아 표현하기	(1)시의 아름다움, 노래의 힘 ▪공무도하가/백수광부의 아내 ▪산도화/박목월 ▪살구꽃 지는 날/안도현 ▪노래 만든 사람/신흠 ▪별/정진규 ▪등대지기/고은 ▪해/박두진 ▪벼락/이성미
창비 (김)	1	문학, 말하기	3. 내 마음의 시와 노래	(1)마음의 고향/이시영 (2)제비꽃에 대하여/안도현
	2	문학,	1. 문학의 즐거움	(1)장편2/김종삼

		쓰기, 말하기		▪이 바쁜 때 웬 설사/김용택
천재 (김)	1	문학, 쓰기	1. 말의 묘미	(1)연분홍 송이송이/김억 (3)▪청산도 절로절로(작자미상)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김종서
	2	문학, 읽기	1. 느끼며 다독이며	(1)해/박두진 (2)봉선화/김상옥
천재 (노)	1	문학	5. 마음을 물들이는 시와 노래	(1)시에 담긴 마음 ▪처음 안 일/박두순 ▪엄마 걱정/기형도 <생활국어> ▪비/황인숙 ▪흰둥이생각/손택수 (2)노래가 되는 말 ▪별/이병기 <생활국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2	문학	4.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	<생활국어> (1)삶과 문학 ▪오줌싸개지도/윤동주
천재 (박)	1	문학, 읽기	2. 아름다운 삶과 글	(1)햇빛이 말을 걸다/권대웅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문학, 읽기	6. 문학과 사회	(1)38도선/박화목
	2	문학, 읽기, 쓰기	1. 체험과 표현	(1)엄마야 누나야/김소월
			<생활국어> 1. 생활을 담은 시	<생활국어> (1)시 창작하기 ▪밥/기일석, 서문시장/방성준, 주인 찾아온 개/김원주-학생작품 ▪내 마음은/김동명 (2)시 발표하기 ▪해/학생글 ▪배추의 마음/나희덕 ▪비 오는 날/임길택 ▪콩, 너는 죽었다/김용택
해냄 (오)	1	문학, 문법	2. 아름다운 우리말	(1)작품의 정서와 분위기 ▪봄바람/박목월

				▪공산에 우는 접동/박효관 <생활국어> ▪어떤 마을/도종환
	2	문학, 듣기	1. 말의 맛과 멋	(1)시어와 노랫말 ▪산유화/김소월 ▪철길/안도현 <생활국어> ▪기다리는 마음/김민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통합 교육에서는 교육의 내용을 잘게 세분하고, 그 세분된 내용들을 위계적 순서로 학습한다는 과거의 기능주의적 교육을 탈피해 지식 내용의 전체성을 강조한다. 국어 교육의 목표가 국어 사용능력 신장에 있다면 교육내용에 있어서 각각의 영역을 단순한 기능위주로 나누어 분절하는 기계적 학습은 지양되어야 하고 통합적 연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통합교육에서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분리된 지식 내용의 교육을 벗어나 교육 과정과 교과를 통합하고 사고와 학습을 통합하며, 이를 위해 활동을 통합하고 시간을 통합하는 등 기존의 세분화되고 분리된 교육 내용과 활동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중학교 국어교과는 「국어」와 「생활국어」로 분책하여 영역을 분리, 학습내용과 제재글의 수용양상도 이러한 분책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개정 검정 국어교과서들 역시 23종 모두 「국어」와 「생활국어」로 분책되어 있기는 하나 기존 교과서의 분책에 따른 영역별 분절에서는 어느 정도 탈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시 단원 영역별 통합의 양상을 살펴보면, 3개 이상의 영역으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는 [읽기-문학-쓰기]가 4개, [문학-쓰기-말하기]가 3개, [문학-듣기-말하기]가 1개, [말하기-쓰기-문법]형태로 1개 단원이 통합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 단원을 통해 국어교과 6개 하위영역 전부를 통합하고 있는 단원은 찾을 수 없었고, 3개 영역의 통합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학 제재의 대표격인 시를 수록하고 있는 단원임에도 문학영역이 제외된 「새롬-생활국어」의 [말하기-쓰기-문법]영역의 통합인데, 이 단원의 제재글로 「깃발」(유치

환), 「그날이 오면」(심훈) 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통합의 형태가 아닌 기존 교과서와 같은 [문학] 단일 내용 영역의 형태를 띄고 있는 단원이 24개 단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쓰기-문학]은 8개 단원, [말하기-문학] 내용 영역의 통합이 4개 단원, [문학-문법]과 [문학-듣기]영역이 각각 3개 단원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말하기-문학]은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였고, [쓰기-문학]은 학습활동에서 주어진 작품을 읽고, 이와 비슷한 작품을 쓰는 모방을 통한 창작활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과 달리 창작교육을 명시화하고 있다. 국어교육에서 창작은 문학적으로 글을 쓰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그 결과를 뜻하기에 중고등학교에서의 창작 교육은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요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창작 교육의 목적은 시, 소설, 희곡과 같은 작품을 짓는 능력을 기른다기보다는 작품을 써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완성되지 않은 창작, 즉 창작의 과정도 창작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구향·최미숙(양소영. 2006)은 말하고 있다. [문학-듣기]영역의 통합은 작품의 내용이나 정서, 또는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영상자료나 노래를 시와 접목하여 듣게 함으로써 제재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듣는 태도를 기르게 하였고, [문학-문법]은 제재 안에서의 기본 개념이나, 상징법, 표현방식 등을 찾아 국어 지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통합교육을 위한 제재글의 유형을 살펴보면, 미래엔(윤)은 시를 1단원 글 속에 숨쉬는 삶에 「해바라기 씨」(정지용)를 [읽기-문학-쓰기]영역으로, 6단원 문학과의 대화에 「동서남북」(김광규)을 [문학-듣기-말하기]로 통합하였다. 미래엔(이)는 2단원 시와 노래를 [문학-쓰기]로 통합하여 「별」,「엄마야 누나야」,「풀잎」,「바다로 간 나비」,「밤」을 수록하였다. 새롬은 [문법-문학]과 [문학]으로 시 단원을 둘로 나누어서 [문법-문학]내용범주에는 '2.말도 옷을 입는다'의 대단원에 '(2) 시는 노래되어-「감자꽃」,「엄마야 누나야」,「동창이 밝았느냐」를 수록하였다. 지학(방)과 창비(김)

은 [문학-말하기]내용범주로 동일하게 통합하고 있고, 해냄은 새롬과 같은 [문법-문학]으로 통합하여 대단원 '2.아름다운 우리말'에 '(1)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봄바람」,「공산에 우는 접동」,「어떤 마을」을 수록하고 있다.

4-2. 소설

1) 7학년 국정 국어 교과서 소설 수록 단원 영역

<표 Ⅲ-16> 7학년 국정 국어 교과서 소설 수록 단원 영역

학기	영역	대단원명	소단원명
1	문학	1. 문학의 즐거움	(4)이해의 선물/폴 빌라드
			보충·심화. 강아지똥/권정생
	문학	5. 삶과 갈등	(1)소설 동의보감/이은성
			보충1. 바람을 파는 소년/이준연
			심화1. 벙어리 삼룡이/나도향
	문학	7. 문학과 사회	(1)홍길동전/허균
			(3)옥상의 민들레꽃/박완서
2	읽기	1. 능동적으로 읽기	보충·심화. 키다리 아저씨/웹스터
	문학	2. 문학의 아름다움	(2)소나기/황순원
			보충·심화. 요람기/오영수
	문학	6. 문학과 독자	(1)흰 종이수염/하근찬
			(2)숨쉬는 영정/구인환
			보충1. 우산장수할아버지/김철수
			심화1. 나비/헤르만 헤세

7학년 문학 제재의 수준이 학습자가 읽은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고, 각 작품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간단히 글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요하고 있다. 즉 문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의 측면 보다 능동적으로 문학 작품을 즐겨 읽는 태도를 길러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과 소설 작품과의 관련은 작품 속에서 그러한 상황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니면 되는 수준만을 언급하고 있는

데, 이러한 수준에 목적을 두고 교과서에 수록된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의 소설 제재는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소설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고전소설에서 근대,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시대상과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소설로 짜여져 있고, 이러한 시대상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외국작가로 폴 빌라드, 웹스터, 헤르만 헤세 등의 작품 3편과 학습자의 문학 제재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여 동화도 수록함으로써 문화적 상황까지 고려한 제재들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14개의 제재는 모두 [문학]과 [읽기]영역 단원으로 한정되어 수록 되어 있다.

이 중 「이해의 선물」,「소나기」,「요람기」,「나비」등은 이전 교육과정기에도 수록된 작품이고, 그 외 나머지 작품은 7차 교육과정기에 새로 수록된 작품들이다.

2)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소설 수록 단원 영역

<표 Ⅲ-17>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소설 수록 단원 영역

교과서	학기	영역	대단원명	소단원명
교학(김)	1	문학	6. 소설 속의 삶과 갈등 -소설의 갈등	(1)아홉살 인생/위기철 (2)자전거 도둑/박완서
	2	문학	5. 문학 속 인물들이 살아간 시대 -문학 속의 시대 상황	(1)몽실 언니/권정생
교학(남)	1	문학	1. 문학과의 만남	(3)소나기/황순원
			5. 문학 속의 인물과 갈등	(1)나비를 잡는 아버지/현덕
	2	문학	4. 문학 속의 시대 이야기	(1)홍길동전/허균 (2)옥상의 민들레꽃/박완서
금성(윤)	1		*	*
	2	말하기 듣기	2. 유쾌한 대화	<생활국어> ▪모모/미하엘 엔데 ▪할머니를 따라 간 메주/오승희
		문학,	5. 시대와 문학	(1)역사적 상황과 인물의 삶

		문법		▪몽실언니/권정생 ▪압록강은 흐른다/이미륵 ▪아버지의 국밥/김진완 (2)홍길동전/허균 (3)명혜/김소연 <생활국어> ▪아버지의 국밥/김진환 ▪몽실언니/권정생 ▪명혜/김소연 ▪초정리 편지/배유안
대교 (박)	1	문학	1. 글과 말의 즐거움	(4)소나기/황순원
		문학	5. 마음 읽기	(1)동백꽃/김유정
	2	문학	3. 시대의 거울을 보다	(1)홍길동전/허균 (4)자전거도둑/박완서
		문학, 말하기		(1)문학 속의 시대 상황 조사하기 ▪상록수/심훈 ▪몽실언니/권정생
대교 (왕)	1	문학	1. 문학의 빛깔과 향기	(2)약방 할매/성석제
		읽기, 문학	5. 작품 속 인물을 찾아서	(1)홍길동전 (2)상록수
	2	말하기 문학	5. 문학과 인터넷에 담긴 세상	(1)기억 속의 들꽃/윤흥길 (2)압록강은 흐른다/이미륵 <생활국어> (1)역사적 상황 파악하기 ▪꺼삐딴 리/전광용 ▪상록수/심훈
두산 (우)	1	문학, 말하기	4. 마음의 창을 열고	(3)선생님의 밥그릇/이청준
	2	문학	2. 세상으로 열린 길	(1)후조/오영수 <생활국어> (2)문학에 담아낸 현실 ▪박씨전/작자미상 ▪흑산도/전광용 (3)삶의 실타래 풀기 ▪연어/안도현 ▪나비/헤르만 헤세
디딤	1	문학,	4. 삶과 갈등	(1)소음공해/오정희

(김)		읽기		
	2	문학, 듣기	2. 역사와 이야기	(2)수난이대/하근찬 <생활국어> (1)문학 속 시대상황 이해하기 ▪아름다운 고향/이주홍
디딤 (이)	1	문학	4. 인물과 갈등	(1)할머니를 따라 간 메주/오승희 (2)20년 후/오 헨리
	2	문학	1. 정서와 분위기	(4)소나기/황순원 <생활국어> (2)소설의 정서와 분위기 ▪나비/안도현 ▪요람기/오영수
		문학	4. 문학과 역사	(2)홍길동전/허균 (4)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 <생활국어> (2)시대상황과 인물의 대응 ▪몽실언니/권정생
미래 (윤)	1	문학, 말하기 문법	3. 인간의 심리와 갈등 이해	(1)나비를 잡는 아버지/현덕
		문학, 듣기, 말하기	6. 문학과의 대화	(2)홍길동전/허균
	2	문학, 쓰기	6. 인간과 사회	(1)수난 이대/하근찬
미래 (이)	1	문학, 읽기	5. 이야기 속의 인물	(1)하늘은 맑건만/현덕
	2	읽기, 문법	1. 읽기의 즐거움	(2)춘향전/지은이 모름
		문학, 듣기	4. 문학을 통한 여행	(1)호동왕자와 낙랑공주/작자미상 (2)수암/이미륵
		말하기 문법	6. 상황에 따른 표현	(1)상대에 따라 다르게 말하기 ▪이야기 서리꾼/이청준 (2)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하기 ▪토끼전/지은이 모름
박영	1	문학	4. 문학과 정서	(3)소나기/황순원

(송)		문학	6. 문학과 갈등	(1)자전거 도둑/박완서
	2	문학	5. 문학과 시대 현실	(1)수난이대/하근찬 (2)홍길동전/허균 (3)역사 앞에서/김성칠 <생활국어> ▪고향/현진건
비상 (조)	1	문학	2. 분위기와의 어울림	(3)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동백꽃/김유정
		문학	5.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삶	(1)마음을 열어요 ▪한여름 밤의 꿈/학생작품 (2)내 꿈을 펼치고 싶어요 ▪홍길동전/허균
	2	문학	2. 같게 또 다르게	(3)배려가 주는 선물 ▪거미의 일기장/이대흠
		문학	4. 시대와 함께하는 글	(2)같은 역사, 다른 선택 ▪일장기의 물결/김동인 (3)역사의 그늘 ▪오마니별/김원일
새롬 (권)	1	문학	4. 문학의 안팎 드나들기	(2)문학과 현실-봄바람/박상률
	2	문학, 읽기	2. 작품 속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1)인물의 삶과 갈등 ▪학/황순원 <생활국어> ▪흐르는 북/최일남 (2)영화 속 인물 들여다보기 ▪꽃들에게 희망을/트리나폴러스 ▪홍계월전/작자미상
웅진 (이)	1	문학	6. 갈등을 넘어서	(1)나비를 잡는 아버지/현덕
	2	문학	5. 문학에 비친 현실	(1)홍길동전/허균 (2)전쟁과 다람쥐/이동하 <생활국어> ▪칼의 노래/김훈
중앙 (이)	1	문학, 읽기	5. 삶과 갈등	1. 삶의 등대를 찾아서 ▪자전거 도둑/박완서 2. 마음의 갈등 ▪공작 나방/헤르만 헤세

	2	문학, 듣기, 문법	1. 이야기의 즐거움	3. 이야기 읽는 재미 ▪이상한 선생님/채만식
		문학	6. 문학으로 세상 엿보기	1. 신분의 벽을 넘어 ▪홍길동전/허균 2. 전쟁 속의 사람들 ▪학/황순원 <생활국어> ▪청소년을 위한 칼의 노래/김훈
좋은책(이)	1	문학	3. 갈등과 화해	(1)자전거 도둑/박완서
	2	문학	2. 세상을 담은 이야기	(1)수난이대/하근찬 (3)홍길동전/허균
지학(방)	1	문학, 읽기	5. 아름다운 성장	(1)하늘은 맑건만/현덕 (2)상록수/심훈
	2	문학, 쓰기	1. 마음의 빛깔	(3)소를 줍다/전성태 <생활국어> (1)문학작품의 정서와 분위기 ▪운동화/구효서
		문학, 듣기	3. 문학에 스며든 역사	(2)학/황순원 <생활국어> (1)문학과 시대 상황 ▪홍길동전/허균 ▪경희/나혜석
지학(이)	1	문학	1. 문학에서 느끼는 정서와 분위기	<생활국어> ▪누나별/오영수
		문학, 읽기	6. 이야기 속 인물들의 삶	(1)소설의 인물 만나 보기 ▪우정의 길 ▪동백꽃/김유정 <생활국어> ▪소음공해/오정희
	2	문학, 말하기	3. 역사 앞의 인물, 변화하는 인간	(1)문학에 그려진 시대 상황 ▪모범 경작생/박영준 ▪소년 스파이/알퐁스 도데 <생활국어> (1)시대 상황과 인물의 대응 방식 ▪학/황순원
창비	1	문학,	6. 삶의 갈등과 위로의	(1)나비를 잡는 아버지/현덕

(김)		쓰기, 말하기	말	
	2	문학, 읽기	5. 소설과 영화는 이웃사촌	(1)수난이대/하근찬
천재 (김)	1	문학	5. 그려내고 알리고	(1)홍길동전/허균 (2)몽실언니/권정생
	2	문학	1. 느끼며 다독이며	(3)소나기/황순원
		문학	4. 인물들의 마음 읽기	(1)자전거 도둑/박완서
천재 (노)	1	문학, 쓰기	3. 더불어 살아가기	(1)문학과 갈등 ▪자전거 도둑/박완서 <생활국어> ▪꿩/이오덕
	2	문학, 쓰기, 문법	4.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	(1)삶과 문학(문학) ▪명혜/김소연 <생활국어> ▪홍길동전/허균
천재 (박)	1	문학, 읽기	2. 아름다운 삶과 글	(2)턱수염/최나미
		문학, 읽기	6. 문학과 사회	(2)홍길동전/허균
	2	문학, 읽기	3. 갈등과 성장	(1)사냥/이효석
		문학, 읽기	5. 선인들의 삶과 언어	(1)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
해냄 (오)	1	문학, 말하기	5. 갈등과 공감	(1)인물과 갈등 ▪육촌 형/이현주 <생활국어> ▪동백꽃/김유정 ▪나비/헤르만 헤세
	2	문학, 쓰기	5. 삶의 이해	<생활국어> (1)작품 속의 시대와 인물 ▪학/황순원 ▪만덕전/채제공(고대한문소설-조선 영정조)

23종 검정제 국어 교과서에서 소설 제재를 수록하고 있는 대단원은 학기별로 1개

에서 3개 단원에 걸쳐 소설제재를 나누어 수록하고 있는데 2개 단원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미래(이)교과서만이 3개 단원을 이용해 소설제재를 수록하고 있었다. 교과서들의 소설 제재의 통합양상을 살펴보면, [문학] 29개 단원, [문학-읽기] 16개 단원, [문학-말하기] 13개 단원, [문학-쓰기] 와 [문학-듣기]가 각각 7개 단원, [문학-문법] 6개 단원, [말하기-듣기] 2개, [말하기-문법] 2개, [읽기-문법] 1개, [문학-쓰기-문법] 2개와 [문학-말하기-문법], [문학-듣기-말하기], [문학-듣기-문법], [문학-쓰기-말하기] 형태로 각각 1개 단원이 통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7차 국정교과서와 같이 통합의 형태가 아닌 [문학] 단일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단원구성이 가장 많았다는 점은 교과서의 편찬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양상이 [읽기-문학]형태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문학 제재인 시나 수필과 다름없이 소설의 통합양상 또한 전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와 크게 달라진 바 없이 통합교육과정에 발맞추기 위해 소설 제재의 통합에 의해 교육적 효과를 위해 고민 했을법한 참신한 통합의 유형은 찾아보기 힘들고 형식적 통합유형에 불과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어과 6개의 하위 영역 중 3개 영역을 통합하고 있는 유형조차 많은 작품 중 6개 단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분석과정에서 하나의 제재가 교과서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예로 권정생의 「몽실언니」의 경우 교학(김)은 [문학]으로, 금성에서는 [문학-문법]의 내용영역으로, 대교(박)는 [문학-말하기]영역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작품은 「몽실언니」외에도 「홍길동전」,「수난이대」,「학」등 수록빈도수가 높은 작품들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작품들의 통합양상의 차이를 각 단원의 성취기준과 학습활동을 통해 그 통합양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연구의 범위가 넓어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4-3. 수필

정태헌(2010)은 그의 연구 교과서 수필 작품의 현황과 특징에서 교과서 수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였다.

첫째, 우리말을 잘 부려 썼으며 어휘가 적절하고 어법은 정확한가. 둘째, 생활이나 체험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의미 전달이 명징하고 평이한가. 셋째, 구성이나 형식에 무리가 없고 주제와 제재의 연결이 긴밀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가. 넷째, 지은이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적합한 내용인가. 다섯째, 제재를 개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주제는 선명한가. 여섯째, 수필의 정신과 태도(유머와 위트, 비판정신, 자기 성찰 등)가 잘 드러나고 있는가. 일곱째, 내용이 진실하며 올바른 가치와 건전한 비판 및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가. 여덟째, 내용이 지은이의 깊은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며 일반화된 보편적 가치인가. 아홉 번째, 소재가 일상생활에서 취한 것이며 가치 있는 삶의 자세를 유발할 수 있는가. 열 번째 국어 교육의 기본 방향을 잘 반영한 내용인가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이러한 조건을 얼마나 합당하게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단원 영역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단원과 보충·심화에 수록된 수필은 총 48편으로 이 중 고전 수필 세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대 수필이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21편, 2학년 교과서에 10편, 3학년 교과서에는 17편의 수필이 수록되어 있다. 수필 제재의 양상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총 48편의 수필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나 본 연구의 비교대상인 검정 체제하의 국어교과서가 현재 7학년으로 제한되어 각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기에, 이와 비교 연구의 특성상 동등한 조건 하에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의 수필제재

의 수록 양상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표 Ⅲ-18>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단원 영역

학기	영역	대단원명	소단원명
1	문학	1. 문학의 즐거움	(3)어린 날의 초상
	읽기	2. 읽기와 쓰기	(1)마음으로 쓰는 편지
			(2)어머니의 우산
			(3)국물 이야기
			보충1. 촌스러운 아나운서
			심화1. 한 눈 없는 어머니
	문학	3. 문학과 의사소통	(1)스스로 터득한 지혜
			(2)현이의 연극
	읽기	4. 메모하며 읽기	(1)내나무
			(3)가정 교육의 어제와 오늘
	문학	7. 문학과 사회	(2)30년 전의 그 날
			보충1. 시험 삼 일 전날
			심화1. 안네의 일기
2	읽기	1. 능동적으로 읽기	(2)먹어서 죽는다
			심화1. 약을 팔지 않는 약사
	문학	2. 문학의 아름다움	(3)섬진강 기행
			심화2.미리내
	읽기	3. 판단하며 읽기	심화1.농사말에 남아 있는 고운 우리말들
			심화2. 비오리
	읽기	5. 글의 짜임	(2)도편수의 긍지
			심화1. 깨끗한 그릇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7학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단원구성 체제를 살펴보면, 총 7개의 대단원으로 [문학]영역 네 단원과 [읽기]영역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학기 국어 교과서는 총 6개의 대단원으로 [문학]영역과 [읽기]영역이 각각 세 단원씩 단원별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서에는 총 21편의 수필이 수록되어 있는데, 1학기 교과서에는 13편의 수필이 실려 있다. 이 중 9편(고전수필 1편포함)의 수필이 소단원의 수필 제재로 수록되어 있고, 보충·심화에는 4편의 수필이 실려 있다. 그리고 2학기 교과서에는 총 8편의 수필이 실려 있는데 이 중 3편의 수필이 소단원의 제재로 수록되어 있으며 보충· 심화

에는 5편의 수필이 실려 있다. 이러한 단원 영역별 수록된 수필을 살펴본 결과, 단원 간 또는 영역간의 통합을 의도한 것은 없었고 수필 제재를 수록하고 있는 대단원 중 5개 단원은 [읽기]영역으로 4개 단원은 [문학]영역으로 통합이나 연계가 아닌 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단원 영역

<표 Ⅲ-19>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단원 영역

교과서	학기	영역	대단원명	소단원명
교학(김)	1	읽기	2. 따뜻한 사람, 향기로운 글-수기 읽기	(1)나는 소녀 가장이다 (2)자루니의 사랑 편지 (3)어머니의 우산
		읽기	5. 의미 찾기와 세상 읽기 -읽기의 특성과 방법	(2)먹어서 죽는다
교학(남)	1	문학	1. 문학과의 만남	(2)괜찮아
		읽기	4. 경험을 담은 글읽기	(1)일생을 갚아야 하는 빚 (2)혼자 걷는 우리 국토 기행 (3)벗들이 지어 준 공부방
금성(윤)	1	읽기, 문법	6. 같은 글 다른 생각	(2)집을 수리하고 (3)먹어서 죽는다
	2	읽기, 쓰기	1. 경험의 나눔	(1)경험의 기록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양묘현 (2)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갑/박영석 (3)시금치 한 단의 추억/이경림 <생활국어> ▪버스에서/정진권 ▪미역국 보다 더 따뜻한 말/박지성 ▪나를 사랑하는 마음/김혜련 ▪구두/계용묵 ▪심재현, 사랑해/최은숙
대교	1	문학	1. 글과 말의 즐거움	(2)괜찮아
		읽기	2. 나와 다른 너	(1)줄지어 선 다랑논, 봄의 교향악

(박)		읽기, 쓰기	3.글과 경험으로 자라는 마음	(2)안네의 일기 (3)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라 (4)동생을 업고
	2	문학	3. 시대의 거울을 보다	(2)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심훈
대교 (왕)	1	문학	1. 문학의 빛깔과 향기	(4)흙을 밟고 싶다
		말하기 읽기, 쓰기	2. 경험을 나누어요	(1)내 삶의 가치 (2)현이의 연극 (3)인디언의 선물
	2	쓰기, 문학	1.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2)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쓰기 ▪방황은 순례와 같다/홍신자
		말하기 , 읽기	3. 다른 생각 다른 표현	(1)오척 단구/이희승 (2)벌레 먹은 과일 주세요/최재천 (3)최민석과 최민우/차보금 <생활국어> ▪축복받은 성격/이시형
두산 (우)	1	문학, 쓰기, 말하기	2. 깨닫는 삶, 나누는 삶	(1)성장의 매듭 (3)내가 꿈꾸는 세상
		문학, 말하기	4. 마음의 창을 열고	(4)춘향전을 읽었나요?
		문학, 말하기	5.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	(1)사람은 원래부터 빛나는 존재다
	2	문학, 쓰기	1. 너와 나를 이어주는 대화	(3)비나무 이야기/배런호스트
		문학	2. 세상으로 열린 길	<생활국어> (3)삶의 실타래 풀기 ▪무명 소리꾼의 참사랑/엄상익
디딤 (김)	1		*	*
	2	문학, 듣기	2. 역사와 이야기	<생활국어> (1)문학 속 시대상황 이해하기 ▪안네의 일기/안네 프랑크
		읽기, 쓰기	4. 체험과 깨달음	(1)변호사 시절의 회상/마하트마간디 (2)막내의 야구방망이/정진권
		읽기	5. 같은 글, 다른 생각	(2)자기만의 몫을 찾아서/이현주
디딤 (이)	1	읽기	2. 읽기가 힘이다	(2)먹어서 죽는다
		읽기	3. 주고 받는 이야기	(2)해 지기 전에 한 걸음만 걷다 보면
	2	문학,	6. 마음에 남는 이야기	(1)따뜻한 조약돌/한은하

		읽기, 쓰기		(2)젊은 아버지의 추억/성석제 (3)인간의 그늘/제인구달 <생활국어> (1)독서를 통한 감동과 성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김혜자 ▪엄마의 바지/권지혜 (2)생활체험의 글쓰기 ▪해바라기를 뛰어넘지 못한 까닭/이상대 ▪청추수제/이희승 ▪묘향산소기/박제가
미래 (윤)	1	읽기, 문학, 쓰기	1. 글 속에 숨쉬는 삶	(2)“초승달”의 추억 (3)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2	쓰기, 문법, 말하기 문학	4. 삶의 깨달음 나누기	(1)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성석제 (3)실수/나희덕
미래 (이)	1	말하기 ,듣기	1. 만남	(1)나는 중학생
	2	문학, 읽기, 쓰기	2. 내 친구, 동물과 식물	(2)인연/이청해
		읽기, 문법	5. 차이와 이해	(3)전화와 편지/김화영
박영 (송)	1	문학, 읽기	2. 읽기로 가득한 세상	(4)책을 따라다니며
		문학, 읽기	5. 느끼며 생각하기	(1)뜻밖의 발견 (2)심재현, 사랑해! (3)어머님을 여의고 백의종군하며 <생활국어> (2)숟가락 젓가락 (3)명량해전을 시작하며
	2	문학	2. 같은 글 다른 이해	(3)생각의 차이 ▪물질적으론 부자, 시간적으론 가난뱅이/볼프강 작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피에르 상소

		문학	4. 호소력 있는 말과 글	(3)나와 다른 아이 ▪나와 다른 아이/강헌구 <생활국어> (3)늙은 말과의 대화/홍우원
비상 (조)	1	읽기	1. 이해의 즐거움	(1)나의 소중한 책-내 기억 속의 책 한권
		문학	2. 분위기와의 어울림	(1)창밖의 풍경-딱새, 살구, 흰 구름, 아이들, 나
		문학, 읽기	4. 나누는 경험, 크는 생각	(1)우리 서로 친해지자-연화, 호아렌 (3)작지만 큰 생각의 차이-주말농장
	2	문학, 쓰기	1. 마음을 나누는 노래	(4)생각이 시가 되고, 시는 노래가 되다 ▪연탄이 있던 집/안도현
		문학	4. 시대와 함께하는 글	(2)같은 역사, 다른 선택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심훈
		문학, 읽기, 쓰기	5. 우리들의 목소리	(2)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싶어요 ▪먹어서 죽는다/법정 (3)어머니를 지켜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닿을 때까지/윤문원
새롬 (권)	1		*	*
	2	읽기, 쓰기	6.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글	(1)삶을 돌아보게 하는 글 읽기 ▪피리 부는 노인/류시화 <생활국어> ▪그냥 내버려 둬 옥수수들이 다 알아서 일어나/함민복 ▪설해목/법정 ▪밤이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납니다/신영복 ▪한번에 하나/잭 캔필드 ▪풍금소리/이철환 ▪우주에서 바라다보라/강인선 ▪마틴 루터 킹/권태선 ▪행복한 식사/아트 기쉬 ▪삽과 칼과 낫을 벗으로 삼은 사람의

				이야기/권근 (2)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글 쓰기 ▪괜찮아/장영희 <생활국어> ▪수필/피천득 ▪돌을 주우며/이오덕 ▪방망이 깎던 노인/윤오영 ▪싸락눈 아이스크림/도완녀 ▪동물과 대화하는 아이 티피/티피 드그레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이희재
웅진 (이)	1	문학	1. 마음의 풍경	(2)어린 날의 초상
		문학, 읽기, 쓰기	4. 글은 삶의 거울	(2)축복받은 성격 (3)버스 안에서
	2	문학	2. 다양한 시각의 발견	(3)먹어서 죽는다/법정
중앙 (이)	1	듣기, 말하기	1. 새로운 만남	(3)멋진 이웃-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읽기, 쓰기	4. 가치 있는 체험	1. 소중한 가족 (1)아버지의 우산 (2)전부 무료 (3)큰누님 증 정부인 박씨 묘지명 2. 나눔과 배려 (1)함께하는 삶 (2)약을 팔지 않은 약사 3. 체험과 표현 (1)달걀 둘 셋 하나 (2)도둑으로 몰렸어요
	2	문법	2. 올바른 국어 생활	2. 낱말의 갈래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헬렌 켈러
		문학	6. 문학으로 세상 엿보기	<생활국어> (3)나의 꿈, 우리의 소망 ▪안네의 일기/안네 프랑크
좋은책 (이)	1	문학	1. 마음을 담은 글	(3)부덕이
		읽기	2. 읽기의 바탕	(3)엄마의 눈물
	2	읽기,	4. 내 마음 네 마음	(2)4월25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한

		쓰기		비야
지학 (방)	1	읽기, 쓰기, 말하기	3. 가치 있는 경험	(1)흑산도의 물고기 박사, 정약전 (2)그림엽서 (3)어머니는 왜 숲 속의 이슬을 떨었을까
	2	문학, 쓰기	1. 마음의 빛깔	(2)막내의 야구 방망이/정진권 <생활국어> (1)문학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안톤 슈나크
		문학, 듣기	3. 문학에 스며든 역사	<생활국어> (1)문학과 시대상황 ▪새 책보/김원일
		읽기, 문법, 말하기	5. 나, 너, 우리의 생각	(2)힘들다, 힘들어/공선옥
지학 (이)	1	문학	1. 문학에서 느끼는 정서와 분위기	<생활국어>그해 여름 봉숭아 꽃물은
		읽기, 쓰기	2. 우리를 되돌아 보는 글	(1)경험을 담은 글에 비추어 보기 ▪손끝으로 여는 세상 ▪다시 시작하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국어> ▪잡초는 없습니다 ▪토실을 허문 데 대한 설
창비 (김)	1	읽기, 쓰기, 말하기	1. 나를 키우는 만남	(1)달려라 냇물아
	2	문학, 쓰기, 말하기	1. 문학의 즐거움	(2)외할매 생각/이상석
		듣기, 말하기	7. 내가 만난 사람	(2) 꿈이 길을 만듭니다/오주환
천재 (김)	1	문학, 읽기, 쓰기	3. 생활 속의 깨달음	(1)괜찮아 (2)이옥설 (3)탈출
	2	문학,	2. 더불어 사는 세상	(1)헬로 인디아/강래우

		읽기		
		문학	3. 매체와 함께	(1)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헬렌 켈러 (2)아름다운 사람 ▪고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장미란
천재 (노)	2	읽기, 쓰기	1. 잊을 수 없는 일	(1)특별한 경험 읽기(읽기) ▪살아 있는 한 다시 올 수 있다/엄홍길 <생활국어> ▪여섯 손가락 피아니스트 '예지'의 꿈/안현자 ▪한국어 잘하는 아이/김요셉 (2)생활 체험 쓰기(쓰기) ▪할머니의 눈물/학생 글
천재 (박)	1	문학, 쓰기	2. 아름다운 삶과 글	(3)별명을 찾아서
		읽기, 문법	5. 언어의 세계	(1)공감하며 읽기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 (2)맥락에 맞게 읽기 -위대한 발명품 한글 (3)피동표현과 사동표현 -어머니의 편지와 감
		문학	6. 문학과 사회	(3)안네의 일기
	2	문학, 읽기, 쓰기	1. 체험과 표현	(2)가야 한다.불가능은 없다/엄홍길 (3)하얀 목도리/김복순(학생작품)
해냄 (오)	1	문학, 문법	2. 아름다운 우리말	(1)작품의 정서와 분위기 ▪달밤-윤오영
		읽기, 쓰기	3, 바르게 읽고 쓰기	<생활국어> ▪생각하면 그리운 땅-섬진강 기행
	2	읽기, 쓰기	6. 경험과 성찰	(1)경험을 기록한 글 읽기 ▪민족의 슬픔을 보듬은 시대의 소리꾼/장석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복효근 ▪내 인생의 스승님/오토다케 히로타다 <생활국어> ▪새지 않은 밤/이문열 ▪테디 베어/잭 캔필드 외

새로 출판된 중학교 1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의 단원구성체제를 살펴보면, 교과서별로 5개에서 많게는 총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 교과서에서 수필 제재를 수록하고 있는 대단원은 학기별로 1개에서 3개 단원에 걸쳐 수필제재를 나누어 수록하고 있었다. 단원 구성면에서 눈에 띄는 책은 새롬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수필 제재를 1학기에 교과서에서는 1편도 수록하지 않았으나 2학기 교과서 6단원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글에 국어교과서에 2편 생활국어에 15편의 수필 제재를 수록하여 [읽기-쓰기]로 일괄적으로 통합하였는데, 다양한 수필 제재를 그 글들의 특성에 따라 좀 더 다양하게 통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많은 수의 작품을 다루게 하여 작품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의도는 좋았으나 이러한 수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 대안 제시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외에 다른 교과서들의 수필 제재의 통합양상을 살펴보면, [읽기]영역 16개 단원, [문학]영역 15개, [쓰기] 1개, [문법] 1개, [읽기-쓰기] 49개, [읽기-문법] 5개, [말하기-읽기] 및 [문학-읽기]영역에 각각 4개, [말하기-듣기], [쓰기-문법], [문학-쓰기]영역에 각각 3개, [문학-듣기]와 [문학-말하기]영역에 각각 2개, [문학-문법] 1편, [읽기-문학-쓰기]의 형태로 8개 단원, [말하기-읽기-쓰기] 7개, [문학-쓰기-말하기] 2개, [읽기-문법-말하기] 1개, [쓰기-문법-말하기-문학]의 내용영역으로 2개 단원이 통합되어 있었다. 통합양상을 통해 [읽기-쓰기]의 통합이 가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고, 통합이라는 교육과정의 의도에서 벗어난 단일계의 영역으로 제한한 교과서도 검정제 교과서로 채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원 영역별 수록된 수필을 살펴본 결과, 수필 제재는 7차 교과서에서 확인했듯이 [읽기]와 [문학]의 영역에서 [읽기-쓰기]로 여기에 더하여 [말하기-읽기-쓰기]의 형태로 통합의 양상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신헌재· 이재승(2001)은 국어과 6영역에 대한 통합을 주장하면서 문학을 중심으로 한 언어지도의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거기에 사용된 언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 문학을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기에 쉽다는 것이다. 또한 문학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언어 사용 기능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문학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지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활동 중 이루어지는 각 기능에 대한 교육적 의도를 가진 경우라야 언어 사용 기능을 '지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수업 시간에 언어 사용 '활동이 이루어진 것'과 구별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문학 제재를 영역 통합의 원칙에 따라 목표의 통합, 내용의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2007년 개정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문학 제재의 특징

지금까지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국어 교과서 문학 제재의 특징을 찾기 위해 7차 국정 교과서와 개정 검정 교과서의 문학 제재인 시, 소설, 수필의 갈래에 따른 제재 수록 현황, 문종별 수록 작가와 시대, 문종별 수록 작품의 제재와 주제 및 문종별 단원 통합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여기에서 검정 국어 교과서 문학 제재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단원구성의 통합이 표면상으로 기존 교과서에 비해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물론 개정 교과서 23종이 모두 이러한 단원 통합 구성방식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기존 구성의 틀에서 변화가 없는 종류도 있고, 심지어 단원구성의 통합 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교과서도 있지만 다수의 교과서가 이러한 단원구성의 통합 형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학 제재 전체의 영역별 통합 구성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Ⅲ-20>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문학 영역 통합 구성 양상

영역	문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통합빈도	8	13	19	21	9	24
백분율(%)	9	14	20	22	10	26

위의 표를 통해 문학은 단일 영역에 이어 읽기나 쓰기와의 통합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검정 국어교과서가 문학 제재와의 통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문학 제재를 질 높은 언어활동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언어 사용 자료의 일종으로 보고 통합적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통합적 활동 문학 연구와 문학적 특수성에 비중을 두고 읽기와 쓰기와의 통합을 시도하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통합'의 개념이나 원리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국어과 교수-학습방법에서 주제중심, 영역 간, 활동 중심, 목표중심이라는 이론적 유형화와 통합구성교과서의 필요성과 중요성만을 앞세우고, 방법적 측면에서 정작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라는 체계적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하기에 실제적 통합이 아닌 형식적 통합을 7차에 이어 검정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개정 교과서의 특징은 문종별 수록 작가들의 양상을 통해 이 교과서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시와 소설, 수필의 문학 제재 전반적으로 수록 작가들의 성향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문학 제재에 수록된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교과서별로 가장 많이 채택된 작가로 시에서는 김소월과 김영랑을 수필 부분에서는 장영희와 법정을 고전 소설의 정전격인 허균을 제외하면 현대 소설에서는 박완서를 위의 연구결과로 밝힌 바 있는데, 이들은 시대적으로는 김소월과 김영랑이 1920-1930년대이고, 나머지 작가들은 최근 활동하는 작가들이기에 문학사에 영향을 받은 경향이 아닌 이들 작가들의 성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영랑과 김소월은 시대적으로 작가의식을 발현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둡고 혼돈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순수문학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작가들로 민요시의 경향이라던가 시문학 자체의 운율, 이미지, 심상을 살려 작품활동을 했던 작가들로 지금 현재까지도 시 제재에 있어 앞서 Ⅱ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전으로 꾸준히 교과서에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대표 시인들이다. 이는 소월이나 영랑과는 달리 법정, 장영희, 박완서 모두 시대적으로는 최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종을 달리 하는 문학 제재의 작가들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추구하는 대개의 작품들은 그들과 같은 색을 띄고 있다고 본다. 이들 작가들 모두 어떤 사상이나 자기만의

주장, 색깔을 거침없고 강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그들 작품 속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분석할 필요가 없으리만치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불굴의 정신력을 기반으로 엮어가는 이야기나 교훈이 될 만한, 또는 삶의 지표가 될 만한 철학적 사유를 이야기 하고 있다.

박완서 또한 '기억과 묘사'라는 그의 작품의 대표적 장치를 통해 자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다른 어떤 작가보다도 소설 속의 인물과 자신을 겹치게 함으로서 작품의 장르상 소설과 수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작가이다. 6·25전쟁이 그의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들도 다수 있는데 이는 단지 그가 그 시대를 살아온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체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쟁의 원인과 전개양상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분단 상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박완서 또한 시, 소설의 대표 작가들의 성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적 성향의 작품들이 가장 많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검정 체제 교과서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검정제의 교과서 채택이 갖는 제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Ⅲ장 갈래별 수록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문학 제재의 교과서별 수록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23종 교과서 전체에 수록된 문학 제재를 헤아리면 1000편이 넘는 작품이 실렸고, 이러한 작품들의 교과서별 수록 양상은 서정갈래 3편-13편, 서사갈래 2편-8편, 교술갈래 3편-17편의 범위로 수록하고 있는데, 각 수록 작품의 특성을 뒤로하고라도 수록작품 수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교과서들이 검정의 기준을 통과하였다는 것은 문학 제재 선정의 적정성에 있어 제재 수나 제재 목록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기존의 단일 교과서 체제에서 늘 거론되어오던 국가 수준의 정전에서 벗어난 다양한 문학 제재 수록에의 요구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과 각 학교별로 선정된 교과서만이 아닌 다른 검정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작품을 학생 나름의 의지에 의해 스스로 폭넓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국정교과서에 비해 7학년에서 9학년에 이르는 학년별 연계성에서 국정 교과서에 비해 분명한 불안 요소를 가지

고 있는 검정 교과서의 이러한 특징이 2학년과 3학년의 검정제 교과서로 이어질 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Ⅳ. 요약 및 제언

2010년 7학년 국어 교과서가 검정제가 바뀌면서 23종의 국어 교과서 가운데 학교별로 수업하는 교사의 선택에 의해 교과서를 채택하였고, 교과서별 성취기준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에 의해 만들어지고 여기에 적합한 교과서가 검정제를 통과했기에 대개의 교과서들이 비슷하지만 같은 성취기준일지라도 선택하여 수록한 제재나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 제재에 대해 연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정제 7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김소월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작품 「엄마야 누나야」가 13개 교과서에 수록되어 가장 많았다. 10곳에 실린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9곳에 실린 기형도의 「엄마걱정」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김소월은 작품 수에 있어서도「엄마야 누나야」를 비롯 「가는 길」,「산유화」, 「풀따기」등의 네 작품을 통해 19개의 교과서에 수록됐다.

수필은 법정의 「먹어서 죽는다」가 5개 교과서, 장영희의 「괜찮아」와 안네 프랑크의 「안네의 일기」가 4개 교과서, 윤오영의 「달밤」과 헬렌 켈러의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가 3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설은 허균의 「홍길동전」이 15개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7개 교과서, 권정생의 「몽실언니」를 비롯하여 하근찬의「수난이대」와 황순원의「소나기」,「학」이 각각 5개 교과서에, 국외 작가로 헤르만 헤세 「공작나방」이 3개 교과서에 수록 되었다. 박완서의 작품은 「자전거 도둑」외에도 「주말농장」,「옥상의 민들레꽃」,「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로 여러 교과서에 나누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단원 구성에 있어 문학 제재는 하위 여섯 개 영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고 있

었고 통합의 양상의 단일영역을 제시해 놓은 단원을 비롯하여 4개 영역까지를 통합하고 있었으며 7개의 교과서에서는 단원 구성에 통합의 양상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학 제재의 제재와 주제에 있어서는 전 교육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검정제 국어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과서 내의 문학 제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느낀 바를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국어 교과서에 대한 희망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작 교육을 도입하면서 문학이 '수용' 즉 '감상'의 학습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창작' 즉 '표현'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는 이상적 교육의 전제아래 창작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추구해야 하는 교과서에서의 시, 수필, 소설 등의 문학 제재는 그동안의 교과서가 해오던 단순히 구색을 갖춘 몇 개의 제재들을 명패 붙은 고정된 진열대 위에 상표만 바꿔 그대로 올리는 수준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창작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 단계인 수용의 과정에서 고정된 진열대를 없애야 한다. 지금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창작교육의 학습활동으로 가장 먼저 교과서에 제시된 문학 제재를 가지고 '모방'의 단계를 거쳐 창작을 유도하는 형태이다. 이때 제시된 교과서 제재들의 고정된 형태는 앞 장에서 분석한 제재와 주제들로 이러한 교육을 수용한 학생들은 분석창작의 단계에서 작품의 소재로 학생 대부분이 자연현상이나 일상화된 사물에서 찾는 '일반화'를 만들어 낸 것이 우리 교육의 결과이다. 이러한 제재는 국가와 사회의 요구가 더 강하게 반영되어 온 면으로 교과서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학부모, 지역사회는 물론 교과서의 주된 독자인 학생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한되지 않은 소재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작품 등 학습자의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형식과 제재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국어 교과서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둘째, 검정제 교과서로 바뀌면서 각 학교별로 23종의 다양한 교과서들로 교육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교사에 의해 교과서를 선택,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교과서를 학교별로 선택함에 따라 수업하는 교사들의 역량과 교과서 활용 의지에 의해 학교별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마다 내용과 형식이 다르겠지만 교육과정의 큰 틀은 같다. 교사들은 성취기준에 따라 제재 분석,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폭넓은 독서를 통한 다양한 제재의 활용이 수업현장에서 요구되기에 여기에 적합한 교사들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검정제 교과로 전환하면서 동일 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 때, 집필자가 전 학년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해 교과서 및 집필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해당 교과의 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원칙이 주는 장점은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학년 간의 수업내용의 연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과서를 편찬할 때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의 지향성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집필자와 그 교과서의 성향에 따라 교과서는 각자의 과정과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에 합당한 제재 선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검정제의 원칙의 틀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각기 다른 교과서와 집필자에 의해 서로 연계성 없는 교과로 배울 수도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체계적인 교육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교과 내용의 중복 또는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검정제 교과서들 대부분이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단원통합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그 통합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단원구성에서는 몇 개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하위통합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 교육과정기에서는 통합의 유형을 학습내용 즉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말하기)”, “빈 칸에 정리해 보자(쓰기)”, “말해 보자(말하기)”, “읽어보자(읽기)”등으로 제시한 반면 검정제 교과서에서는 학습내용으로 제시한 교과서와 제재글을 통한 통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학습내용에 의한 통합은 제한된 시수 안에 이러한 내용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고, 제재글에 의한 통합은 그러한 제재글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통합의 명백함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교육과정 내용의 충실하고 통합적인 반영은 형식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구체성을 지닌 내용적 요소가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 요소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에서 시범보이기의 수업방식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7차 교육과정기의 국정교과서와 새로운 교과서, 또는 23종 교과서들 간 서로를 어떻게 비교해도 각 교과서들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 된 것일까. 하나의 견고한 틀을 마련해놓고 겉무늬만 조금씩 달리해왔던 국어 교과서의 답답한 발전 행보를 연구과제로 거론하며 국정제 교과서 발행의 문제와 이에 해결책으로 검인정제로의 전환을 제시하던 학자들 다수가 새로운 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인 새 교과서에서의 두드러진 변화와 각 교과서별 개성과 기존 교과서의 식상함에서 탈피한 확연한 차이를 기대한 것은 과욕이며 성급함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대안 없는 주장의 문제가 아닌 '검정제'라는 제도의 관문을 거쳐야만 출판될 수 있다는 형태만 바꾼 '제'의 견고한 틀로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새로운 교과서가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자들이 평소에 교과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안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검정 교과서의 출원 자격을 완화하여 어느 정도의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제도권 교과서의 틀을 버리기 힘든 민간 출판사 뿐만 아니라 교과서 제작에 의지와 아이디어 및 기준의 자격을 갖춘 학회나 기관도 교과서를 출원하도록 하고, 거기에 더한 욕심으로 검정의 관문까지 배제할 자유 발행제 국어 교과서를 제안한다.

현재 변화의 중심에서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국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라는 지금까지의 딱딱하고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쉽고 재미있으며 가지고 놀 수 있는 유희의 도구로서의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앎'으로 이끌 수 있는 모두가 희망하는 국어 교과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 2007.

_____,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07.

권영민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새롬교육, 2009.

김대행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천재교육, 2009.

김상욱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창작과비평, 2009.

김종철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디딤돌, 2009.

김형철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교학사, 2009.

남미영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교학사, 2009.

노미숙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천재교육, 2009.

박경신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대교, 2009.

박영목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천재교육, 2009.

방민호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지학사, 2009.

송하춘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박영사, 2009.

오세영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해냄에듀, 2009.

우한용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두산동아, 2009.

윤여탁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미래엔컬처, 2009.

윤희원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금성출판사, 2009.

왕문용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대교, 2009.

이남호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미래엔컬처, 2009.

이삼형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디딤돌, 2009.
이숙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유웨이중앙, 2009.
이승원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좋은책신사고, 2009.
이용남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지학사, 2009.
이충우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웅진씽크빅, 2009.
조동길 외, 『국어· 생활국어 1-1』· 『국어· 생활국어 1-2』, 비유와상징, 2009.

구인환,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구인환· 우한용· 박인기· 최병우 공저,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7.
김상욱,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6.
김춘수, 『김춘수 시론전집1』, 현대문학. 2004.
박영목 외, 『국어과교수학습론』, 교학사, 2001.
변영계, 『교수, 학습 이론의 이해』, 학지사, 2001.
신헌재· 이재승.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 방안』, 박이정, 2001.
우한용, 『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정동화 외, 『국어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1989.
정재찬,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역락, 2003.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1.
조동일· 이복규, 『우리 고소설 연구』, 역락, 2004.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최운식, 『문학교육론』, 집문당, 1986.
교육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1-1』. 2001.

<논문>

길다지, 「한· 중 중학교 교과서 시 단원 비교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2008.

김라연, 「6차 국어 교과서와 7차 국어과 교과서 비교 연구」, 교육과학연구, 신라대학교 교육과학 연구소, 2002.

김성일,「글의 이해과정에서 흥미의 역할」,『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8, 한국심리학회, 1996.

김연희,「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글에 대한 학생 흥미도 분석-현행 제 7차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김현수,「문학 제재와 학습자의 흥미」,『문학교육학 제2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김혜정, 「국어 교재의 문종 및 지은이 변천에 대한 통사적 검토:현대 교육과정기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116호, 한국어교육학회, 2005.

라영균, 「정전과 문학 정전」, 『외국문학연구』 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0.

류보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 읽기 제재의 교육적 적합성 연구:제7차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2006.

문영진, 「정전 논의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제18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박용찬, 「문학교과서와 정전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제 38집, 국어교육학회. 2005.
「한국전쟁 전후 현대시의 국어교과서 정전화 과정 연구」『어문학』91집, 형설출판사, 2006.

성경수, 「청소년 문학과 문학교육」,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송 무, 「문학교육의 '정전'논의」『문학교육학』창간호,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송은혜, 「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분석 연구:제 6차 교과서와 비교하여」,

충북대 교육대학원, 2004.
양소영, 「국어과 내적 통합에 관한 메타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재인용
유영희, 「교과서 문학 제재의 수용 양상 및 특성-제7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문학교육학 제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윤여탁, 「시의 이데올로기 교육」, 『시 교육론』, 태학사, 1996.
「현대시 제재의 교육적 위계화」,『시 교육론2』, 서울대 출판부, 1998.
「교재 구성을 위한 현대시 정전」,『리얼리즘의 시 정신과 시 교육』, 소명출판, 2003.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문화저널21』,문화저널21&계간시인세계, 2009.
이주영, 「제7차 교육과정 구현으로서 중학교 교과서 작품 선정의 적절성 고찰」,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6.
이진선,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수필의 분석적 고찰:문학 단원 수필 제재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2009.
임난숙,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2002.
전소연,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재 성장소설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2007.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1996.
정태헌, 「교과서 수필 작품의 현황과 특징-중.고등학교 교과서(국어, 문학)에 수록된 현대수필을 중심으로-」2010년 대표에세이문학회 세미나 발제 원고 중에서, 2010.
조성빈, 「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시 수록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인하대교육대학원, 2008.

조혜숙, 「국어 교과서 연구 현황 분석: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교육대학원, 2007.

조희정, 「교과서 수록 현대문학 제재 변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24집. 2005.

최유리, 「김춘수 시 교수-학습방안 연구:정전 논의와 관련하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최인자,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기반한 서사 텍스트 선정원리 연구」, 『문학교육학』 제 23호, 2008.

최지현, 「한국 현대시 교육의 담론 분석」,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문학교육에서 정전과 학습자의 정서체험이 갖는 위계적 구조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제5호, 2000 여름, 한국문학교육학회.

홍지애,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시 연구: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2006.

표 목차

<표Ⅲ-1>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서정갈래 양상 ····· 21
<표Ⅲ-2>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시 수록 작가와 시대 ····· 26
<표Ⅲ-3>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시 수록 작가와 시대 ····· 27
<표Ⅲ-4>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소설 수록 작가와 시대 ····· 33
<표Ⅲ-5>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소설 수록 작가와 시대 ····· 34
<표Ⅲ-6>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작가 ····· 39
<표Ⅲ-7>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작가 ····· 40
<표Ⅲ-8>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록 시의 제재와 주제 ····· 46
<표Ⅲ-9>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록 시의 제재와 주제 ····· 47
<표Ⅲ-10> 7학년 국정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의 분류 ····· 51
<표Ⅲ-11>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의 분류 ····· 52
<표Ⅲ-12>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록 수필의 제재와 주제 ····· 55
<표Ⅲ-13>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록 수필의 제재와 주제 ····· 57
<표Ⅲ-14>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시 수록 단원 영역 ····· 62
<표Ⅲ-15>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시 수록 단원 영역 ····· 63
<표Ⅲ-16> 7학년 국정 국어 교과서 소설 수록 단원 영역 ····· 74
<표Ⅲ-17>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소설 수록 단원 영역 ····· 75
<표Ⅲ-18> 7학년 국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단원 영역 ····· 83
<표Ⅲ-19> 7학년 검정 국어교과서 수필 수록 단원 영역 ····· 84
<표Ⅲ-20>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문학 영역 통합 구성 양상 ····· 92

ABSTRACT

A Study on Materials of Literature in Korean Textbooks
-Centering on the 7th Year Korean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07 Revised Curriculum -

Guk, Hyun-Mi
Advisor : Prof. Kim, Hye-Yo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Literary works as materials of literature to be published in Korean textbooks should have story values in history of literature and educational implication, and attract attention from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determined traditional standards, educational implication and students' interests as standards to select materials for Korean textbooks and compared collection aspects and features of materials such as poetry, essays and novels in present Korean textbooks of 23 varieties based on the existing 7th Korean Textbooks. Based on the results, it aims to present directions on effective selection of materials of literature in Korean textbooks.

Chapter Ⅱ analysed literary materials, conventions, students' interest, and educational point of views on the materials to identify the position they occupy in Korean textbooks.

Chapter Ⅲ analysed the current collection of materials according to genres and compared writers and periods of literary works, topics of the materials, integration of units between Korean Textbook Type 1 and authorized textbooks to infer educational effects of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through authorized textbooks and their dispositions.

Through such analysing process, it was discovered that the authorized textbooks emphasized integration of units on the surface and did not present specific and organized methodology for integration. To examine writers of each genre, each textbook preferred specific writers who pursued for pure literature, not caring ideologies and historical trends. The number of works collected in the 23 varieties Korean textbooks was differen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textbooks should deal with materials which provide new opportunities to read new and trendy topics for parents, communities and students, and reflect students's interest and characteristics, and teachers' training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teachers' ability to effectively use textbooks should be also developed. With an introduction of the authorized textbook system, alternatives to the problem in connecting what to teach in each grade as authors need not be the same ones in sequential writing of the same subject should be developed. In integrating units, specific contents which can support forms should be presented. Finally, in respect to publishing textbooks, in spite of the introduction of a new authorized system, the effect was insignificant in the textbooks. Therefore, the application qualification of the authorized textbooks should be mitigated so that academies or institutes with intention, ideas, and qualifications to publish textbooks as well as private publishing companies can freely participate in publishing them.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	학 번	20088025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국현미 한문 :鞠賢美 영문 : Guk, Hyun-mi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대주파크빌 102동 602호				
연락처	E-MAIL : hmkuk87 @ 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국어 교과서의 문학 제재 분석 영어 : A Study on Materials of Literature in Korean Textbook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

2011년 1월 일

저작자: 국 현 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